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아르헨티나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일반

1.국가개요	4
2.한국과의 관계	5
3.경제현황	10
4.정치	13
5.주요산업	14

II.무역

1.수출입	15
2.한국과의 수출입	24
3.수출 유망항목	28
4.무역협정	31
5.수입규제 및 관세	33
6.통관 · 물류	39

III.투자

1.투자환경	44
2.외국인직접투자	49
3.한국기업 투자	51
4.투자진출방식	57
5.외환	64
6.노무	66
7.세무	70
8.지식재산권	73
9.청산 및 철수	74

IV.참고정보

1.시장특성	76
2.비즈니스 에티켓	79
3.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83
4.현지 진출 성공사례	

5.출입국 안내	84
6.유관기관	87
7.물가정보	90
8.출장정보	92
9.생활정보	94
10.KOTRA 무역관 안내	104
11.전시회 정보	113
	114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아르헨티나 공화국 (Argentine Republic)
면적	2,780,400 km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23 기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인구	46,654,581 명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23년 7월 전망)
민족(인종)	유럽계 백인(대부분 이태리계 및 스페인계)과 메스티조(스페인-원주민 혼혈) 97%, 원주민계 등 기타 3%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스페인어
종교	천주교(92%), 기독교(2%), 유대교(2%), 기타(4%)
기후	◦ 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한다. ◦ 4계절이 있고, 밤낮과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다 (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 한국이 여름일 때 아르헨티나는 겨울, 한국이 봄일 때 아르헨티나는 가을, 한국이 가을일 때 아르헨티나는 봄이다).
국가원수	◦ Javier Milei (하비에르 밀레이): 2023년 12월 10일(일) 취임 예정.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2-02-15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문화협정 서명	1970-01-04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문화협정	
발명특허권 보호협정	1972-08-14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 협력 협정	1980-02-14	한국전력-아르헨티나 원자력위원회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	
한아 경제공동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991-10-28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상용 복수 사증발급 각서	1992-07-16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상용 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	
투자보장협정서명	1996-09-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원자력 평화 협정	1997-09-19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범죄인 인도 협정	2000-11-09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3-02-12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항공업무협력 협정	2003-12-27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면제 협정	2004-01-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일반여권 비자 면제	2004-07-31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여권 비자 면제 시행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 한국학센터 설립약정	2004-11-29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 한국학센터 설립약정 서명	
경제무역협력협정 및 교육문화협력협정	2004-11-29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기타 자원협력약정 등 9개 경제관련 약정 서명)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2006-10-2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세관상호지원약정		한-아 세관상호지원약정 서명	서명일 : 2010년 11월 26일
형사사법공조조약	2013-07-26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외교 원조 협정	2014-02-24	아르헨티나 공화국 외무부와 한국 외교 통상부의 외교 원조에 관한 협정	
국립공원관리기관 간 MOU 체결	2014-02-24	한-아 국립공원관리기관 간 MOU 체결, 국립외교원-아르헨티나 외교연수원 간 MOU 체결	
농업 진흥청-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간 MOU	2015-02-16	농업 진흥청-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간 MOU 체결	
전자정부 협력 MOU	2016-06-30	한-아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예술가레지던시 MOU	2016-09-30	한-아 예술가레지던시 MOU 체결	
국토정보공사 간 MOU	2016-11-18	한-아 국토정보공사 간 MOU 체결	

보건의료협력 분야 MOU	2016-11-22	한-아 보건의료협력 분야 MOU 체결	
식약처-아르헨티나 ANMAT 간 MOU	2016-12-07	한국 식약처-아르헨티나 ANMAT 간 MOU 체결	
헌법재판소-대법원 간 협력 MOU	2016-12-07	한-아 헌법재판소-대법원 간 협력 MOU 체결	
연구재단-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2017-01-13	한국 연구재단-CONICET 간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교육교류 기본협력 MOU	2017-12-19	한-아 교육교류 기본협력 MOU 체결	
한-아 사회보장협정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국민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강화	서명일 : 2018년 11월 27일*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한-아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2019-01-27	한-아 워킹홀리데이협정으로, 18-34세의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간 아르헨티나에 체류 가능하며,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과 일시적인 취업을 통해 근로 경험 취득 가능	서명일 : 2018년 11월 27일*서명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발효

한국교민 수

23,000 명 (자료원 : 2023년 8월기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추정치)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다양한 협정들을 체결, 발효 중이다.
 - 실질적으로 1990년대부터 양국정상 간 상호방문이 실현되는 등 주요 인사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각종 협정 체결 및 양자협의회의 개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통해 14년 만에 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사회보장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을 체결(2018년)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교섭 중이며, 고위정책협의회 등 분야별 양자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 2019년 1월 27일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되었고, 동 협정으로 18~34세의 대한민국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경제발전 및 경제위기 극복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생산노동부는 양국 간 무역투자 진흥협력 로드맵 수립을 희망하여 우리나라 산업부에 로드맵 초안을 전달('18.11.)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방식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기도 했다.
 - 2020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폐쇄, 의무 자가격리 조치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했으며, 2020년 초기에는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낮은 수치의 확진자 발생 및 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20.3.20.)를 통해 국제사회의 창의적인 대응과 그의 일환으로 'Global Humanitarian Emergency Fund' 창설을 제안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의료지식 공공화를 주장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교육부에 원격회담('20.11.17.)을 요청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공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 아르헨티나 전 국민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며 등교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국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과 대처 방안을 참고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 한국은 두 차례에 걸쳐 아르헨티나 정부측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 1차로 마스크 2만 장('20.09.03), 2차로 마스크 44.7만 장('21.2.11.)을 아르헨티나 보건부에 전달했다.

경제

- 아르헨티나는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등을 통해 한국과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은 2017년 3월 예비 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5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 후 9월 제1차 협상을 개최했고, 2023년 5월 기준 총 7번의 협상을 진행했다. (마지막 협상은 2021년 8월 30일~ 9월 3일 화상회의로 진행)
- 아르헨티나의 경우 현재 경기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는 수소 프로젝트 협력 및 자원 발굴(공급처 확보) 차원에서 관련 주정부/정부기관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프로젝트는 포스코의 리튬 생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Salta) 및 카타마르카(Catamarca) 주 접경 지역에서 수산화리튬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들이 협업을 위해 동반 투자진출을 시행하고 있다.
-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리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던 외환송금 규제, 복잡한 환율 제도, 높은 세금 등의 문제가 신정부 개혁을 통해 해결되면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되며, 양국간의 교역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을 중심으로 한류 전파 및 한국 문화 홍보, 양국의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2006년 11월 30일에 문을 열고, 한류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 2018년 11월 7일, 한국문화원은 늘어나는 한류 팬과 한국문화 애호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보다 규모가 크고 현지인에 게 인지도가 높은 역사적인 건물로 이전했다.
 - 한국문화원은 미술품 전시, 소규모 공연, 한국어·한식·한국문화 강좌, 케이팝(K-pop) 공연, 한국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류 붐 조성을 통해 한국문화 홍보뿐만 아니라 양국의 문화 교류도 증진할 계획이다.
- 아르헨티나 한류 팬 증가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 진행 및 문화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특히 K-pop을 통한 문화교류가 활발하며, 많은 현지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11월 3일 개최된 한인의 날(Dia de Corea)에 아이돌 그룹 MONT를 초청했으며, 약 10만 명의 팬이 모여 K-pop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또한, 한식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증가하여 2019년 첫 한식의 주(Semana de Gastro Corea) 행사가 진행되는 등 아르헨티나 문화에 한식이 점차 녹아들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식 페스티벌(Festival Hansik)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제 8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 여러 교포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관련 이벤트 메뉴를 선보였으며, 28개 한국 음식점이 동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디지털 프로그램(한식 Class, 요리 경연 등)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 거주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에게도 한식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2022년 9월 첫째 주에는 제 9회 한국 영화제 개최를 통해 상업영화 10편, 독립영화 2편을 아르헨티나 주요 영화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영화제 개최는 한국 영화들을 아르헨티나 대중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내 한국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다.

- 특히,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르헨티나 지방(Tucuman, Cordoba) 방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르헨티나 주요 지방 도시를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직접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화 확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한국-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22. 5.26.~6.12.)를 투쿠만(Tucuman) 지역에서 개최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영화 상영, 공연/ 전시 등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세미나(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과 협업)도 함께 진행하며, 한국문화 확산이 양 국간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행사를 코르도바(Cordoba)에서 하반기('22.10.18.~28.)에 개최함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 2023년의 경우에도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강좌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 살타(Salta) 방문 행사도 추진된 바 있다.
- 상반기에는 한식 강좌(2023년 4월~5월), 한국어 강좌, K-Pop 경연대회,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23. 5.30.~6.8.)가 살타(Salta)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인의 날(Dia de Corea) 행사('23. 11.25.~11.26.)가 개최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가 '23. 12월 2일 라 플라타(La Plata)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2	-9.9	10.4	5.7	
명목GDP (십억\$)	447	385.9	486.9	630.9	
1인당 GDP (PPP, \$)	21,710	19,659	22,485	25,370	
1인당 명목 GDP (\$)	10,054.02	8,571.93	10,658.46	12,187	
정부부채 (% of GDP)	89.8	103.6	80.6	85	
물가상승률 (%)	53.8	36.1	50.9	95.5	
실업률 (%)	9.8	11.6	8.8	7.1	
수출액 (백만\$)	65,162	54,946	77,987	90,021	
수입액 (백만\$)	46,928	40,315	59,291	80,994	
무역수지 (백만\$)	18,234	14,631	18,696	9,027	-
외환 보유고 (백만\$)	44,877	39,408	39,662	44,597	
이자율 (%)	67.3	29.4	35.6	52.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48.15	70.54	94.99	130.62	

<자료원 : EIU (2023년 11월 기준 최신자료)>

나. 경제 동향

- 재정적자 및 IMF 협의 성공, 다만 보조금 삭감과 외환유출은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
 - 재정적자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 사치품 수입 감소 및 수출세 징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재정적자는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화폐 발행량 증가 등으로 인해 연간 100% 내외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 2022년 3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조정협상(EFF, Extended Fund Facility)을 통해 445억 달러 규모의 부채에 대해 4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2034년 중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등을 추진할 전망*이며,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수입 및 송금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 공공요금 보조금 삭감은 '22년 10월부터 지역별 상한선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현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는 '23년 상반기 내 일부 빈곤층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없앴다.
-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 경제의 최대 이슈
 - 국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시기에 시행된 가격 통제와 공식/비공식 환율 간 격차 확대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며, 2023년 10월 기준 연간 누적 인플레이션은 142.7%로 연말 기준 150%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 밀레이(Javier Milei) 당선인은 극단적인 통화정책(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폐쇄, 경제 달러화 등)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경제가 달러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폐쇄화 최대 평가절하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 민간소비의 경우, '22년은 7.8%로 양호한 수준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23년 민간소비는 -2.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4년에는 -9.5%로 소비성장세가 대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정부 정책 신뢰 회복 등 영향으로 '25년부터 민간소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제 전망

- '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1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아르헨티나는 '21년, '22년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했으나 '23년에는 -1.8% 역성장 전망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2년 상반기까지 '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제시했으나, 아르헨티나 내 정치적인 이슈(정부 주요 인사 교체 및 '23년 대선 등) 및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해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재조정하며 아르헨티나 경기 침체를 전망했으나, 최근 광업 및 채석업의 호조를 반영하여 -1.8%로 조정했다.
 - '22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7%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하였으나, '23년 1분기부터 경기 하락세가 시작되어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기에 진입한 후 '25년부터 아르헨티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외환보유고 확대와 현지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정책 강화
 -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외 외환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수입대체화, 수입규제/외환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외환보유고 감소 지속 및 최대 수출품목인 대두 작황 부진에 따라 '23년 연중 수입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현재 수입대금 결제를 현지 수입통관 완료 시점부터 최대 180일 이후에 가능토록 하는 등 외환 송금규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원부자재 수입이 불가피한 아르헨티나 현지 제조업체들의 생산차질 및 내수 시장 공급 부족 등의 사태 또한 우려되고 있다.
 - 다만, 2023년 12월 10일 출범하는 밀레이(Milei) 신정부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외환통제 자유화, 수출 관련 세금 철폐, 쿼터·할당량·허가 및 승인을 포함한 국제 무역에 대한 모든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이후 아르헨티나의 통상 규제정책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2022~2026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연평균 2.8% 성장 예상
 - 현재 진행 중인 원자재 가격상승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농업, 에너지,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반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취약한 국가 재정, 경제 통제 정책, 장기 자금 조달 애로 및 기업 활동 규제 등은 아르헨티나의 성장 잠재력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극/빈곤층 증가로 치안·안전 문제가 악화되며 사회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 밀레이 정부의 가장 급진적인 경제 개혁은 통화 정책에 관한 것으로 자유 시장 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의 폐쇄를 공약한 바 있다.
 - 다만, 정권을 획득한 자유 전진 연합(La Libertad Avanza)의 의석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어느 정당도 단독 법안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간의 합의 없이는 중앙은행 폐쇄가 어려울 수 있다.

- 당분간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이 전통적 통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12월에 정책 금리를 150%(현재 133%)로 인상하면서 연간 실질 금리를 311%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정치

가. 정치체계

아르헨티나 정치 형태는 대통령제(4년 연임제)로, 입법부는 양원제(상원 72석, 하원 257석*)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원수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으로 2019년 12월 취임하였고, 2023년 11월 19일 결선투표(대선)에서 승리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당선인은 12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상원 임기 6년, 하원 임기 4년으로 매 2년마다 교체 (상원은 총 인원의 1/3, 하원은 1/2씩 교체)

나. 최신동향

- 2023년 12월 10일 부 정권 교체(좌파정권에서 극우파 정권으로 교체)로 인한 경제-경제 불안 가증
 - 2023년 아르헨티나는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 감소,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 위한 수입 규제,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소비자 구매력 약화), 자금 조달을 위한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밀레이(Milei) 신정부에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재정 축소 및 정책 통합 등 개혁조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 신정부의 공약은 상당히 개혁적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정책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신정부의 기초 경제 공약
 - 2023년 12월 10일 취임 이후 대규모의 전면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에 통화(달러화)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와 함께 고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가 보조금과 공공 부문 고용에 대한 지출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적자 공기업 민영화, 국가 기능의 최적화 및 축소(정부부처 18→8개) 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 아울러, 외환통제 자유화, 수출 관련 세금 철폐, 쿼터·할당량·허가 및 승인을 포함한 국제 무역에 대한 모든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유무역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재정적자 문제 해결 및 세계 개혁을 선행한 뒤, 무역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가장 큰 경제 정책 중 하나는 달러화 계획이나, 개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의회에서 상당한 정치적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달러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현재 아르헨티나는 정치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위안화 통화스와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2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가진 이후 중국의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의 경우 민간기업도 존재하나 대부분 국가소유 기업이며, 광업, 관광, 농업, 전력 및 원자력 에너지, 건강/전자상거래 부분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투자 자금을 중국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로 투자여력이 없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과의 교역 중단을 언급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 및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르헨티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광산업 분야 등 중국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교역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해 경쟁을 원하지 않는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관세동맹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탈퇴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 내정자인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재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회원 탈퇴 등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정책 · 법령

○ 현 정부는 2019년 대선 공약 20개 중 낙태법, 여성부 창설, INDEC(아르헨티나 통계청), 공공요금 유지(보조금), 소비 진흥에 대한 부분만 이행했으며, 환율규제와 국제통화기금(IMF), 빈민층에 대한 공약 등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재조정 협상 등을 통해 재정적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조금 지급 유지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 회복을 위해 일부 공공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2023년 12월 10일 출범하는 밀레이 신정부의 경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 시행이 급선무일 것으로 전망되며, 상하원 의회 결정 여하에 따라 기타 급진적인 개혁 정책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아르헨티나 산업은 기본적으로 1차산업에 기반한 전형적인 Commodities 수출 국가로, 현 정부는 현지 산업 육성(제조업 기반)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시행

- '22년 9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차산업 부양법을 제정,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하고 있다
 - * 부가세 환급, 부가세 인하(21→10.5%), 소득세 정산시 가속상각 허가, '31년까지 수출세 0% 적용
-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부양정책 도입으로 OEM 현지화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2년 완성차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53.6만 대가 생산되었다. 아울러, '23년 1~3월 누적생산량은 13.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 소비재/완성품 등 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현지 생산 기반 확대 추진

- 농목축업 등 1차 산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는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
- 현지 생산 품목(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철강 등)의 경우 자국 생산기업 보호를 위해 높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분류하여 현지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2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을 더 신속히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일반적인 소비재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상거래(e-Commerce) 산업

-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79%), C2C(16%)와 B2B(8%)로 구성, B2C 형태가 압도적이며, 전자상거래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와 리테일(Retail)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의 독점하고 있으며,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는 2008년 최대 경쟁업체인 데레마테(DEREMATE)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 *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 1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
- 아르헨티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도 해외공급업체가 직접 벤더로 등록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Cross-Border Trade, 이하 CBT)를 아르헨티나 및 칠레에 런칭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정부 당국의 수입규제, 세금 및 물류비용 등을 고려시 일부 경쟁력 있는 소비재에 한해서 CBT를 활용한 현지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현재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온라인 플랫폼은 중남미 18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나, 해외 공급업체가 벤더로 참가할 수 있는 CBT는 브라질, 멕시코 및 콜롬비아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 '23년, 국제 경기 악화 및 외환규제 등으로 아르헨티나 교역량 감소 전망
 - 아르헨티나 내수시장 악화와 외환규제로 인해 원활한 수입 진행이 어려워지며 '19~'20년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 '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점진적으로 시장 회복이 이뤄지면서 수입량 또한 증가하며 예년 수입량 회복에 성공하였다. '22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액 19.5% 증가, 수입액 37.7% 증가를 기록하며 수출입이 활기를 보였으나, '23년에는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산업재 및 자본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지 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기 악화, 외환규제 및 폐소화 약세 영향으로 '23년 수입액은 -3.7% 감소,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대두 작황 부진에 따라 수출액은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공업 위주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한계로 수출 경쟁력 상실
 - 아르헨티나는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에 따라 중간재 산업인 중화학 산업 육성 없이 경공업 위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수입 중 자본재 및 그 부품 등 중간재 비중이 약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대체 산업이 현지 단순 조립생산 형태로 굳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본재 수입 관세 하향 조정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상실로 자동차산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외 수출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수출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수출의 60% 이상으로 1차산업 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 이에 따라, 기후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량 및 국제가격 변동에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곡물 시세가 상승하여 아르헨티나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원유 가격 상승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했다.
- 수입 동향
 - 수출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브라질,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대부분의 공산품, 중간재 및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2,844,116,401
2	중화인민공화국	7,499,644,125

3	미국	5,747,661,310
4	칠레	3,308,779,493
5	베트남	2,880,489,000
6	인도	2,464,142,660
7	네덜란드	2,050,428,561
8	스페인	1,864,584,686
9	스위스	1,811,165,969
10	페루	1,722,528,433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9,260,317,822
2	중화인민공화국	5,636,504,031
3	미국	4,854,605,125
4	베트남	2,926,021,342
5	칠레	2,888,446,730
6	인도	2,856,743,598
7	네덜란드	1,765,159,891
8	스페인	1,548,900,335
9	페루	1,377,828,427
10	인도네시아	1,364,318,63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1,140,845,259
2	중국	5,952,895,191
3	미국	4,725,596,261
4	인도	4,213,471,704
5	칠레	3,719,649,182
6	베트남	3,147,892,636

7	네덜란드	2,836,798,794
8	스페인	2,311,924,399
9	말레이시아	1,850,051,386
10	인도네시아	1,795,716,574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2,217,282,616
2	EU	11,110,890,550
3	미국	7,080,776,066
4	칠레	4,425,916,689
5	네덜란드	2,671,657,809
6	스페인	2,274,574,991
7	영국	1,202,330,989
8	일본	1,169,086,094
9	스위스	1,137,768,566
10	독일	1,101,268,78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10,180,629,852
2	중화인민공화국	9,326,468,431
3	미국	6,320,283,182
4	독일	2,928,954,254
5	파라과이	1,749,515,234
6	볼리비아	1,369,811,869
7	타이	1,196,150,481
8	이탈리아	1,146,007,614
9	멕시코	1,128,387,898

10	스페인	1,010,075,859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8,669,809,541
2	중화인민공화국	8,662,055,708
3	미국	4,456,925,420
4	파라과이	2,217,871,880
5	독일	2,037,188,279
6	볼리비아	1,031,093,920
7	이탈리아	1,030,893,053
8	타이	1,012,424,922
9	멕시코	945,902,685
10	인도	833,611,642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3,566,793,662
2	브라질	12,462,301,498
3	미국	5,981,474,868
4	파라과이	2,960,612,542
5	독일	2,582,441,272
6	태국	1,553,258,135
7	인도	1,413,376,071
8	멕시코	1,403,135,533
9	이탈리아	1,341,295,775
10	베트남	1,184,377,665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	-----	--------

1	브라질	12,095,939,701
2	미국	11,071,748,117
3	EU	9,750,489,907
4	독일	2,478,264,842
5	파라과이	1,907,134,906
6	볼리비아	1,640,217,607
7	네덜란드	1,308,774,014
8	스페인	1,163,217,796
9	일본	894,944,053
10	스위스	742,329,342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아르헨티나의 주 수출품목은 원자재(Commodities)로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옥수수(사료용), 대두박, 조유로 집계되고 있다.

수입품목의 경우 대두 파종용 종자와 비료 제외, 상위 10대 품목 대부분 중간재 및 산업재로 구성(상위 5개 품목 전체 수입액의 23.8% * 차지)되어있다.

* 기타석유화학제품(8.3%), 천연가스(5.2%), 자동차부품(4.6%),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3.2%), 기타승용차(2.5%)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543,857,890
2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723,659,132
3	100590	기타	5,909,598,627
4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545,868,409
5	120190	기타	3,445,059,564
6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311,017,017
7	100199	기타	2,320,343,167

8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260,263,331
9	020230	뼈 없는 것	2,246,225,117
10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29,260,40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694,724,715
2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691,369,302
3	100590	기타	5,999,195,821
4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704,950,409
5	120190	기타	2,221,672,125
6	100199	기타	2,045,529,320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034,149,093
8	020230	뼈 없는 것	1,931,086,990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720,651,082
10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867,819,73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00590	기타	8,178,863,516
2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637,936,316
3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439,522,215
4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356,307,254
5	100199	기타	2,382,312,663
6	120190	기타	2,309,381,941
7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007,088,688
8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872,572,492

9	020230	뼈 없는 것	1,765,726,793
10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73,315,880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100,044,243
2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204,171,141
3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915,935,057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40,814,174
5	100199	기타	2,131,951,766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871,516,110
7	020130	뼈 없는 것	1,448,849,021
8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382,579,018
9	100590	기타	1,358,666,634
10	030617	그 밖의 새우류	1,242,977,359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1,603,625,341
2	271019	기타	1,500,941,699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46,894,433
4	271121	천연가스	1,266,024,437
5	851770	부분품	864,484,001
6	300490	기타	822,988,868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767,741,708
8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3,616,193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66,666,833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83,517,71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1,978,158,737
2	271121	천연가스	968,823,787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20,247,461
4	851770	부분품	798,900,910
5	300490	기타	772,901,469
6	271019	기타	729,503,539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46,799,716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45,790,649
9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72,046,198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3,430,59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2,620,307,603
2	271019	기타	2,462,792,856
3	851770	부분품	1,232,719,528
4	271111	천연가스	1,178,102,237
5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176,101,389
6	271121	천연가스	964,805,867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96,651,192
8	260112	응결시킨 것	850,312,122

9	300490	기타	835,573,671
10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730,750,167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199,849,604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877,125,260
3	120190	기타	1,658,213,460
4	271121	천연가스	1,330,089,438
5	300490	기타	1,318,434,454
6	271111	천연가스	991,753,649
7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793,258,319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721,049,111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671,171,109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656,454,151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경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 3차 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제조에 필요한 원료나 식품,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풍부한 천연 자원에 기반한 1차 산업 수출이 주를 이루고, 2, 3차 산업 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기타산업기계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사료, 식물성 유지, 은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최종재보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혹은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기술집약적 제품이 주로 수출된다.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 및 광물 등의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사료의 비중이 54.1% 를 차지하고 있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2022년 기준, 양국 간 교역규모는 31억 100만 달러로 2018년 최저 수준(9억 4,200만 달러)을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8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對한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양국 간 교역량 감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
 - 2019년 부터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입이 증가하며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아르헨티나의 對한국 수입은 5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2022년 기준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입액은 25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의 對한국 수입액은 5억 2,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 2023년 10월까지 양국 간 교역규모는 1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0% 가량 감소하였다.
 -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42.7% 로 대폭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수입규제 및 송금규제 등 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23년 12월 10일 출범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정부가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외환통제 등 각종 규제 철폐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경제정책으로 제시함에 따라 시장진출 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341	865	-524
2020	332	894	-562
2021	391	1,824	-1,433
2022	529	2,572	-2,043
2023	403	1,207	-80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아르헨티나 주요 수출입 품목은 1차 산업 제품(대두, 밀 등 곡물류), 중간재, 자본재, 에너지 등이며, 아르헨티나에서는 1차 산업 제품을 수출, 2차 산업 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도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의 주요 수입품) 2022년 기준 전년대비 사료(48%), 박류(223%), 기타정밀화학원료(459%), 식물성유지(34%) 수입 증가; 2023년 10월 기준 전년대비 기타정밀화학원료(30%), 은(147%), 의약품(14%) 수입 증가
- (한국의 주요 수출품) 2022년 기준 전년대비 자동차부품(49%), 합성수지(6%), 석유화학합성원료(343%) 수출 증가; 2023년 10월 기준 전년대비 기타산업기계(2,430%), 석유화학합성원료(147%) 수출 증가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51	0	51
2	1332	경유	46	0	45
3	7420	자동차부품	69	0	69
4	8491	회전기기 부분품	0	0	0
5	7290	기타산업기계	1	0	0
6	7131	공기조절기	11	0	10
7	7251	건설중장비	20	0	20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2	0	11
9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4	0	3
10	7901	기타기계류	4	0	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39	0	39
2	1332	경유	31	0	31
3	7420	자동차부품	29	0	29
4	8491	회전기기 부분품	19	0	19
5	7290	기타산업기계	14	0	14
6	7131	공기조절기	13	0	13
7	7251	건설중장비	12	0	12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9	0	9
9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9	0	9
10	7901	기타기계류	8	0	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1,899	-1,899
2	0131	식물성유지	0	273	-273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5	98	-84
4	1112	은	0	36	-36
5	2262	의약품	18	36	-18
6	0135	박류	0	115	-116
7	0421	새우	0	28	-28
8	0419	기타어류	0	15	-15
9	0431	오징어	0	18	-18
10	1160	아연광	0	12	-1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36	사료	0	653	-653
2	0131	식물성유지	0	205	-205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	113	-109
4	1112	은	0	80	-80
5	2262	의약품	8	34	-26
6	0135	박류	0	31	-31
7	0421	새우	0	19	-19
8	0419	기타어류	0	15	-15
9	0431	오징어	0	15	-15
10	1160	아연광	0	8	-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High-End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액 (US\$백만)	450
수입관세율(%)	14% (세부 HS CODE에 따라 상이하 나 대부분 14%)	대한 수입액 (US\$백만)	10
선정사유	현지 열악한 제조기반으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하나이며, 2022년 기준 전년대비 수입액 28% 증가		
시장동향	Low-Tech 제품의 경우 저가 중국산 의료기기 및 현지 제조기업 제품 위주로 시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High-Tech 제품의 경우에는 현지 R&D 투자기업 부재로 인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쟁동향	저가 중국산 제품 또는 고가 유럽/미국/일본 제품이 기존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한국제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인지도가 상승하며 시장진출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제품 등록 이슈(현지 식약청 등록시 고위생 경계국 자유판매증명서 필요) 등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임.		
진출방안	'23년부터 현지 의료기기 제품 등록시 한국에서 발급된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인정받게 되어 등록기간 및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기회 요인 형성.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는 High-Tech 적용 제품을 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 현지 정부에서 수입 대체를 위한 제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바, 현지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현지화(조립생산) 방안도 고려 필요. 아르헨티나 현지 의료기기 전시회(ExpoMedical) 혹은 브라질 Hospitalar 등 중남미 지역의 대표 전시회 참가, 학술대회 등을 통해 현지 유력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도 효과적.		

◦ 자동차산업 자동화 설비(자동컨베이어, 로봇, 금형 등)

HS CODE	8207	수입액 (US\$백만)	125
수입관세율(%)	18%	대한 수입액 (US\$백만)	14.6
선정사유	현지 진출 자동차 OEM(GM, VW, FORD 등)에서 현지화 및 4차 산업(자동화 설비)에 투자 중으로 생산자동화시스템, 자동 컨베이어 벨트, 로봇, 금형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아르헨티나 정부의 자동차산업 장려정책 시행(2022년 9월) 및 현지 OEM(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SUV, PICK UP) 생산 라인 추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산시설 관련 투자 확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시 급감했던 자동차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 중심의 수출 물량도 확대되면서 자동차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20년 257,000대 → '21년 434,700대 → '22년 536,000대)		
경쟁동향	자동화 시설의 경우에는 가격 보다는 프로젝트 적합 여부 및 맞춤형 설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또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reference 등을 고려해 주요 공급업체들과 진행하는 경향이 뚜렷		
진출방안	미국, 유럽 등지에서 OEM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reference를 활용하면 비즈니스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 현대·기아차 납품 이력도 appeal이 가능하므로 활용 필요. 현지 OEM 주요 협력업체(TIER 1, 2)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진출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음.		

○ 기계요소, 전력 기자재

HS CODE	8481	수입액 (US\$백만)	541
수입관세율(%)	14%	대한 수입액 (US\$백만)	4.2
선정사유	현지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등으로 전력산업 공공조달 수요가 성장하면서 관련 기자재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		
시장동향	전력 기자재의 경우, 대부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에이전트는 공급업체 견적을 확인한 뒤 입찰 참가 진행. 에이전트가 여러 공급업체 가격을 비교하다보니, 국내기업 제품이 단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경쟁동향	저가의 중국산 제품, 브라질에 제조 공장을 보유한 일본 및 브라질 제품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브라질 제품의 경우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혜택(유리한 관세) 및 지리적 이점(짧은 물류 기간)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진출방안	대부분 입찰로 구매가 진행되는 품목으로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장 중요. 또한, 중국산 저가제품 및 브라질 제조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파이낸싱 제공 등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K-Pop 콘텐츠 서비스

선정사유	K-CULTURE의 현지 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K-POP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
시장동향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국문화원, 한인회 등을 통해 K-MOVIE, K-FOOD 등 한국 문화가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K-POP은 여러 아이돌 그룹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인기가 매우 높고, K-POP 안무 (Choreography) 대회도 개최되는 등 아르헨티나의 한국 콘텐츠 소비는 점차 증가할 전망.
경쟁동향	한국 문화와 중국 및 일본 등의 아시안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우려가 될 만큼 경쟁이 크지는 않음.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적재산권(라이선스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무분별한 비공식 소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공식 에이전트 선정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활동 필요.
진출방안	콘텐츠 사업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 모색 가능. 현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공연 서비스나 이벤트성 라이브 방송 진행, 라이선스 판매를 통한 현지 머천다이즈 제품 제조·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 및 추진 가능.

○ 마켓플레이스(상거래플랫폼) 구축 서비스

선정사유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상호 이득이 되는 가격 제시 등이 가능한 플랫폼임. 급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으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좋은 대안이 되었고,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와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현재 주요 SNS(Facebook, Instagram 등)에서도 활발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임. 소비자와 구매자가 한 눈에 보인다는 점 등으로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된 SNS기반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 소비재 위주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

경쟁동향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일반 소비재는 SNS 플랫폼 점유율이 매우 높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아닌 이상 진입이 어려운 상태. 또한, 현지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Mercadolibre 등)이 IT계열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임.
진출방안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재 위주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기업간 마켓플레이스(B2B) 구축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지 시장 진입에 유리할 전망. 예를 들어, 물류산업 중 개인 트럭운전수와 현지 운송 수요를 연결하는 서비스, 에듀케이션 서비스(온라인 강좌 혹은 교수와 연결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동화설비 서비스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주요 자동차 생산 OEM, 주요 협력업체(TIER1, 2)들이 현재 생산시설에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자동화 설비 설치 및 사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자동차산업 장려정책 시행(2022년 9월) 및 현지 제조기업(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SUV, PICK UP) 생산 라인 증설 등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확대. RENAULT의 경우 현재 생산시설 설비를 완공하여 하루 약 280대 생산 진행 중. 자동화설비의 경우 지속적인 컨트롤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관련 유지보수 서비스 수요 상존
경쟁동향	자동화설비 유지보수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매우 중요함. 또한, 현지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있는 특정 기업들이 존재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실정.
진출방안	프로젝트를 시공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진입 모색 필요. 한국기업 단독 서비스 제공보다는 관련 에이전트, 하청업체 등과 협력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아르헨티나-브라질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1990-12-20	1990-12-20	ACE 14
아르헨티나-칠레 PTA	아르헨티나, 칠레	1991-08-02	1991-08-02	AAP.CE 16
아르헨티나-파라과이 PTA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1992-11-06	1992-11-02	ACE 13
남미공동시장 (MERCOSUR)-칠레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1996-06-25	1996-10-01	ACE 35
남미공동시장 (MERCOSUR)-볼리비아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1996-12-17	1997-02-28	ACE 36
남미공동시장 (MERCOSUR)-멕시코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멕시코	2002-09-27		자동차 부문 협정(ACE 55)
아르헨티나-우루과이 PTA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03-03-31	2003-05-01	AAP.CE 57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인도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	2004-01-25	2009-06-01	
남미공동시장 (MERCOSUR)-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2004-10-18		AAP.CE 59
남미공동시장 (MERCOSUR)-페루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페루	2005-11-30	2006-06-01	ACE 58
남미공동시장 (MERCOSUR)-쿠바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2006-07-21	2007-03-26	AAP.CE 62
아르헨티나-멕시코 PTA	아르헨티나, 멕시코	2006-08-24	2007-01-01	ACE 6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이스라엘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스라엘	2007-12-18	2010-07-0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남아프리카관세 동맹(SACU)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 과이,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008-12-15	2016-04-0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이집트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 과이, 이집트	2010-08-02	2017-09-07	
남미공동시장 (MERCOSUR)- EU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 과이, 유럽연합	2019-06-28		
유럽자유무역연 합(EFTA)-남미 공동시장 (MERCOSUR) FTA	E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 이, 파라과이	2019-08-25		

〈자료원 : MERCOSUR 공식 홈페이지, Sice-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韓-남미공동시장(MERCOSUR) TA	한국, 아르헨티나, 브 라질, 우루과이, 파라 과이	2017.03.02. 공식선언문 서명 2018.05.25.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8.09.11~15. 제 1차 공식협 상 진행 2020.02. 제 5차 공식협상 진행 2021.02. 제 6차 공식협상 진행 2021.08. 제 7차 공식협상 진행	2009년 TA 추진에 대한 MOU 체 결 이후로 협상 진전이 없었으나, 전 마크리 정부 임기 중 빠른속도 로 공식협상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현 정부 출범('2019. 12.) 이후 진 행된 5차~7차 공식협상 진행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임.

〈자료원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식 홈페이지, Sice-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29173200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etyl Phthalate DOP)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18.10.4 ~ 2023.10.4	○ 판정결과 : 6.73% * 2023.6.1부터 120일간 조치 잠정 중단(연장 가능성 있음)
2	85042300	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한국, 브라질, 중국	○ 부과기간 : 2019.11.22 ~ 2024.11.21	○ 판정결과 · 한국 : 52% · 브라질 : US\$8 ~ US\$8.5 또는 38% · 중국 : 54%
3	390761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PET)	반덤핑(규제중)	한국, 인도, 중 국	○ 부과기간 : 2019.11.6 ~ 2024.11.5	○ 판정결과 · 한국 : 17.61% (KP CHEMICAL CORP. and LOTTE INTERNATION AL CO. LTD.제외) · 인 도 : 12% (3.35% for DHUNSERI PETROCHEM &TEA LTD) · 중국 : 16% * 일몰재심중 (22.10.22~) * 2023.6.1부터 120일간 조치 잠정 중단(연장 가능성 있음)

수입금지품목

○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환율 안정, 국내 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 요인과 지식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 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의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고품의 경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수입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 0.1%를 농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DEHP, DBP, BBP, DINP, DNOP)를 함유한 완구 및 육아 제품
 - 활성제약성분(IFA)으로 니메솔리드를 포함한 모든 제형의 의약 제품
 - 가정용 백열전구
 - 올라퀀독스 함유 의약품 및 식품 또는 동물 사료용 제품
 - 비휘발성 물질 100g당 0.06g 이상의 납을 포함한 페인트, 래커 및 바니쉬
 - 1,880~1,900MHz 사이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전화기
 - 순면
 - 중고 타이어
 - 중고 오토바이, 삼륜차 및 자동차
 -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
 - 중고 엔진
 - 중고 의료기기
- * 상기 수입 금지품목 이외에 HS Code 84, 85, 86, 87, 88, 89, 90류에 해당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경제부 시행령 909/94 호에 의거, 일정한 품질규격 심사 및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수입 가능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용품 등은 품질 인증 및 형식 승인을 받거나 관계 당국에 제품이 등록되어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통합인증제도는 없고, 품목별로 표준인증협회(IRAM), 산업기술청(INTI), 국립식품의약청(ANMAT), 통신위원회(CNC), 운송규제위원회(CNR)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IRAM 및 INTI의 인증 중 일부는 임의 인증도 포함하나, ANMAT 및 CNC 인증은 모두 강제 인증이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오던 수입규제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WTO의 반대로 폐지하였으나, 2015년부터 이를 대체하는 기술적 비관세 장벽을 대폭 늘려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 사전수입신고제(DJAI)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을 사전에 연방세입청(AFIP)에 신고해 각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정책(2012년 1월부터 발동)

- (폐지)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 2015년 12월 출범한 아르헨티나 마크리 정부는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를 2015년 12월 22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도입했다. (AFIP 일반 시행령 3823/15)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같은 무차별적 수입규제 정책이 아닌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여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차이를 두고 있다. 수입비자동허가제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 수입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며, 최대 10일간의 승인절차와 90일간의 수입유효기간이 주어진다.
 - 2022년 10월 신규 수입시스템(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 Sistema de Importaciones de Republica Argentina-SIRA)의 등장으로 폐지되었다.

-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ublica Argentina)
 - 2022년 10월 11일 아르헨티나 국제청(AFIP) 시행령 5271/2022에 의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3번째 수입 관리제도인 SIRA를 도입했다.
 - 또한, 신규 수입 관리제도도 함께 도입한 외환결제 시스템(SIRASE;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ublica Argentina y Pagos de Servicios al Exterior)은 외환 송금규제를 더욱 심화시켜 수입업체들의 송금 기한이 늘어나고 있다.

- 수입 비자동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aticas)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함께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책으로 현지 생산 중인 민감 품목을 수입 비자동허가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수입수입 비자동허가제에 해당하는 HS Code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추가 및 제외를 반복하면서 민감 품목에 대한 규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 현재 약 1,400개의 HS Code가 수입 비자동허가제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수입 비자동허가제 포함 품목이 확대되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자동허가(LA, Licencias Automaticas)

- 자동허가(LA) 품목은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서에는 SIRA 신청번호와 함께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수정 불가)

2) 비자동허가(LNA, Licencias No Automaticas)

- 수입 비자동허가제(LNA)에 해당되는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 제품 위주로 섬유, 신발, 장난감, 자동차부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자동허가(LA) 품목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 신고서에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수입 비자동허가제(LNA)는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수입제품을 검사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 (*오차인정범위 : FOB 단가 5%, 수량 4%). 수입 비자동허가제(LNA)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각 사례별로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60일(근무일 기준) 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2023년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 승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각 신청업체의 재정적인 능력이다. 새로 도입된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하에서 세관과 연방세입청이 수입 과정을 함께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 수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사항: HS Code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동허가제(LNA) 해당 품목으로 분류되어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 승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동허가 품목에 포함되어 현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수입업체에 따르면 같은 비자동허가 대상 품목이라도 수입업체에 따라서 수입 승인이 쉽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는 등 차별을 둔다고 한다.

TBT

○ 대표적 기술적 장벽

-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 분야 국내 기업(현지기업) 및 최혜국과 그 외 국가간의 대우 차이
- 지리적 표시의 오용, 지적 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
- 동물 사료, 향수, 화장품, 산업 제품 및 장비 용품, 타이어에 대하여 더 높은 관세 적용

○ 인증 발급기관

1) 표준인증협회(IRAM,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 IRAM은 전기·전자, 화학, 가스 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해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이다. IRAM은 1999년 7월 개편된 결정문(Disposición 775/99)에 의거해 품목의 강제인증 및 자율인증기관으로 재편됐다. 동 기관은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2)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SGS, IRAM, LATU(Laboratorio Tecnológico del Uruguay) 등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완구 인증에서는 아르헨티나 완구협회(CAIJ), 스페인 완구공업조사협회(AIJU)와 협력관계에 있다.

3)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품청(ANMAT, Administraci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a Médica)

- 현지 법률(Ley 16463/64)에 의거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간 의학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제조·가공·수입·수출 및 유통을 위해서는 ANMAT 등록을 거쳐야 한다. 법령 17/06호에 의하면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인증 소요기간은 제품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근무일 기준 180일(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ANMAT 제품 인증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4) 아르헨티나 통신위원회(CNC, Comisin Nacional de Comunicaciones)

-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통신위원회(CNT, Comisi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와 우편 및 전신위원회(CNCT, Comisin Nacional de Correos y Telégrafos)의 합병을 통해 설립됐다. 전화, 인터넷, 오디오텍스트, 위성, 해상 및 항공 통신과 관련된 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를 관리, 유지, 모니터링하고 규제한다.

기타

○ 2023년 연말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 및 외환 규제 강화 지속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의 기존 외환송금 규제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규제 품목 추가 등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품의 현지 수입 통관 완료시점으로부터 180일 경과 이후 외환송금 가능 (60일, 90일, 180일로 나뉘어져서 송금 가능하나 대부분 180일 승인)

- 완제품 수입만 규제했던 이전과 달리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나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제조업 생산 감소 또는 중단, 특정 제품의 공급부족 사태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 아르헨티나 정부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성화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허가하지 않아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대금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성화를 선언(2023.4.25)했다.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위안화를 사용해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90일 기준으로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 수출국이 중국이 아니어도 위안화를 사용해 대금 결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아르헨티나 수출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달러화 결제를 통한 수입승인 취득이 쉽지 않은데다 송금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도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들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 밀레이(Milei) 신정부, 자유무역 추구 전망

- 2023년 12월 10일 출범하는 밀레이 신정부는 외환통제 자유화, 수출 관련 세금 철폐, 쿼터·할당량·허가 및 승인을 포함한 국제 무역에 대한 모든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유무역을 추진할 전망이다. 수입 관련 세금 철폐도 경제 개혁 과제로 들어가 있으나, 수입 관세 등 철폐시 현지 제조업 전반이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관세 일부 인하 등 대안이 제시될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 아울러,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재정적자 문제 해결 및 세제 개혁을 선행한 뒤, 무역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 관세제도 개요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남미공동시장 협정에 따른다.

-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이 아니거나, 아르헨티나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제3국"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협약 대다수는 남미공동시장 및 중남미 국가, 중동지역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시아

아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스페인어 : AEC, Arancel Externo Comn)
 -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역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역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역외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역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자 제39조 결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역외공동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 공포를 통해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관세율 확대 품목은 HS Code 100개로 정해졌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공고됐다.
 - 2014년 10월 대통령령 제 1636호를 통해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남미공동시장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n)보다는 높고, 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인 35%를 넘지 않도록 정해졌다. (100개의 HS code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1.5.6. 갱신 작업을 진행했다.)

- 특혜관세
 -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회원국 특혜관세) 중남미 11개국은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81년 3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Asociaci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n)를 설립했다.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이며,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다.
 - 각 회원국은 1980년 체결된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해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안데스공동체와의 특혜관세)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개국은 1998년 4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 (남미공동시장-SACU 특혜관세) 2008년 7월 1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해 양측간 1,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 아르헨티나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AD VALOREM)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품목 분류는 HS Code로 진행,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단위로 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및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 제품 및 완제품일수록 관세가 높다.

- 품목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 4.5~12.5%: 1차 상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중량세 부과품목, 자동차(20~35%) 등
- 아르헨티나의 역외공동관세율은 ALAD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ladi.org/accesoamercados/arancelesdeimportacion/>
 - 방법
 - ① Aranceles de importacin por pas e item 클릭 (화면 상 오른쪽 버튼)
 - ② Pais Importador(수입국)에 Argentina를 입력하고 Codigo o producto에 HS Code를 입력한 후 Buscar(검색하기)를 누르면 세부코드 표가 나옴
 - ③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8자리 이상 세부코드를 클릭

(세부코드 클릭 시 아르헨티나의 Tasa de Estadística(통계세)와 Derecho de Importación Extrazona(역외수입관세율) 확인 가능)

*참고: 세부코드 클릭 후 Importaciones(수입)를 클릭하면 아르헨티나의 동 Hs code 수입 이력 및 수출국 확인이 가능하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무역항 및 물동량

○ (항구) 대서양 해변을 따라 38개의 항구와 주요 강변을 따라 25개의 항구가 있다. 수출상품은 로사리오, 바이아 블랑카,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라테, 캄파나 항을 주로 이용하며, 수입상품은 산 니콜라스, 수드, 캄파나, 비야 콘스티투시온, 케켄 항에서 주로 처리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항구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국제항구로,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의 약 90%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최고 처리용량은 1,200만 TEU이다. 라 플라타 항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남쪽으로 60km 거리에 있는 라 플라타 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로,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항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바이아 블랑카, 케켄-네코체아,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푸에르토 마드린 등도 주요 항구이며, 이들은 주로 어업활동의 중심 항구 역할을 맡고 있다.

2) 주요공항 및 물동량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항공·해상·육상 교통망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교통망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부족해 시설 확충이 더딘 상태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물동량 중 90%는 해로 또는 수로를 이용해 운송되는데, 주요 교역 대상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는 주로 수로를 통해 교역하고 있다.

○ (공항) 아르헨티나에는 57개 공항이 있으며, 이중 27개가 국제공항이다. 현재 33개 공항이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2억 2,800만 달러 투자를 통해 공항 이용객 수를 2025년까지 3,4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주요 공항 정보

(1) Aeropuerto Internacional Ministro Pistarini(Ezeiza 국제공항)

- 주소: Autopista Tte. Gral. Riccieri s/n (1802), Ezeiza

- 홈페이지: www.aa2000.com.ar

- 위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36km 지점에 위치

(2) Aeroparque Jorge Newbery(호르헤 뉴베리 국제·국내 공항)

- 주소: R. Obligado s/n(1425)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홈페이지: www.aa2000.com.ar

- 위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북서쪽 시내에 위치

(3) Aeropuerto Internacional de Cordoba Ing. A. Taravella(코르도바 국제공항)

- 주소: Av. La voz del interior 8500, Cordoba, Argentina

- 홈페이지: www.aa2000.com.ar

- 위치: 코르도바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9km 지점에 위치

3) 기타 참고사항

○ 주요 통관 정보

- 아르헨티나에서 통관신고는 2018년부터 전자무역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외무역 일원화 창구인 싱글윈도우(VUCE,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를 통해 수출입에 관한 모든 수속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의 통관 시스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많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수출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전문 통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 물품검사 시스템

-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세관검사를 한다.

·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 통관절차 흐름은 하기와 같다.

입항확인(Malvina System을 통해 확인) → 타 장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 수입신고 → 수입물품 검사 신청 → 관세 등 세금 납부 → 물품 통관

*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신고서

선적관련 서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상업송장(C/I) 원본 및 사본 3매

포장명세서(P/L)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공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 일반 통관절차

- 아르헨티나에서 통관신고는 마리아시스템(S.I.M.: Sistema Informatico Maria)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진행한다.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 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에서 마리아 시스템으로 접속해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마감되면 마리아시스템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검사 방법이 지정돼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된다.

- 통관절차

- ① 입항 확인(Malvinas System을 통해 도착 여부 확인 가능)
- ② 타 장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 ③ 수입신고
- ④ 수입물품 검사 신청(제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검사 실시)
- ⑤ 관세 등 세금 납부
- ⑥ 물품 통관

○ 통관 절차 및 시스템

-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가 달라지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수입허가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수입시스템(SIRA)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세관검사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 세관검사

-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세관검사를 한다.

- 1)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 2)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 3)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 4) 적갈색 검사제도(Canal Morad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10일 내외 소요

- 자세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에는 10일 내외 정도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

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된 평균 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 6개월 이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보증금으로 공탁한다.

- 요청 선적 관련 서류

-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공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 2)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 3) 포장명세서(P/L)

- 4)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 5)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 통관비용 및 세금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회원국으로 수출국이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일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통관이 진행 된다. 이 외의 국가는 역외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n(TEC) 0~20%)를 부과하며,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는 역외공동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관세 외 통관 세금

- 부가세(IVA): CIF + 대외세 기준 10.5% 혹은 21%가 부과된다.

- 추가부가세(IVA ADICIONAL): 업체의 생산용이 아닌 유통을 위한 제품일 경우 추가부가세 10% 혹은 20%가 부과된다.

- 통계세(TASA DE ESTADISTICA): CIF 기준 3% 부과된다. 통계세의 경우 남미공동시장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 CIF + 대외세 기준 6% 부과된다.

- 매출세(IMPUESTO A LOS INGRESOS BRUTOS) : CIF + 대외세 기준 2.5% 부과된다.

- 견본품 통관(Importacion de muestras) - 임시 통관(Importacion temporal)

- 아르헨티나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 및 재수출을 위해 견본품의 수출입을 허가한다. 아르헨티나 임시 통관법에 의하면 수입 진행 시 물품의 상업 및 산업적 가치가 없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유입되는 것을 허가한다. 다른 국가로 재수출을 위해 들어오는 품목들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수입 전 임시통관으로 아르헨티나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 통관서류는 일반 통관 서류와 비슷하나 현지에서 머무르는 시간, 사유서, 제품 특징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 아르헨티나 국내에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에서 3년이며, 품목별로 상이하다. 기간이 만료된 물품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을 시 아르헨티나 정부에 압류되거나 상품성을 없애기 위해 제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다. 수입품의 가치는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 견본품/임시 통관 시 필요서류

- 사유서

- 상품의 특징 설명, 중량, 크기 등

- 국내 보유 기간

- * 일반/완전 수입 시 부여되는 세금을 보증금으로 선납

통관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선적서류 준비

-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 심사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따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등록 통관사 이용

- 통관사는 등록된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통관사를 선정하는 일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사안이다. 수출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통관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수입품목 종류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수출입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통관 제도가 불투명해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품 특성별로 전문 통관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관과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통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 고관세 부과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들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자동차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역외공동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였다. 해당 행정령에 따라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WTO 최고치인 35%) 시행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간재, 자본재를 제외한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상향조정 되었으며, 정확한 현지 수입관세 파악과 현지 시장 가격 파악이 중요하다.

◦ 최저 수입 가격제도

- 언더밸류 및 관세 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최저 수입 가격제도를 재도입해, 합성 필라멘트 직물, 의류 등 신고 수입가격이 최저 수입 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2007년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 수입 가격제도를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의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통관 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lcomex S.A.

주소	Salta 188, CABA
전화번호	(+54 11) 5032-2002
이메일	info@alcomex.com.ar
홈페이지	https://alcomex.com.ar/

◦ Away Custom Brokers

주소	Alicia Moreau de Justo 1080, Oficina 144, Buenos Aires
전화번호	(+54 11) 3220-3474
이메일	operaciones@away.com.ar/info@away.com.ar
홈페이지	https://www.away.com.ar/

◦ Fineport S.A.

주소	Peru 359 P.14 OF.1406 ,CABA
전화번호	(+54 11) 4342-7552

이메일	contacto@fineport.com.ar
홈페이지	http://www.fineport.com.ar/

<자료원 : ADUANA(아르헨티나 세관청)>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유로운 외화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르헨티나의 대외 경쟁력 촉진 및 자본이 부족한 아르헨티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99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헌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처럼 노동권, 기업운영, 자산의 매매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에서 개발이 필요한 산업 위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세금공제이다.)

○ 외국인투자가는 투자금과 총 수익금을 해외에 송금할 권리가 있으나, 현 정부의 외환규제 강화로 외국으로 송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이 현지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수익금을 현지에서 재투자하거나 향후 과실송금이 가능해질 때까지 잘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외국인투자의 경우 아르헨티나 국내 법률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법인체를 이용할 자격이 있으며, 행정명령 21382에 의거, 아르헨티나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된다.

투자인센티브

1) 광산업 진흥 조세 인센티브

○ 선택된 업체에 한해서 광물의 탐사, 개발, 준비, 추출 및 특정 처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각 지방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부가세, 사회 보장세, 각 지방에서 부여하는 총 세금 부담 등이 회사의 출원일로부터 30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유지된다.
- 로열티: 지방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추출된 광물 값의 3%로 제한한다.

2)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아르헨티나의 개발 및 연구회사는 연간 연구프로젝트에 지출되는 금액의 최대 10% 또는 5백만 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3) 자본 자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이 제도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새롭게 진출한 회사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본 자산 또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산업 체제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하여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다. 법률 제26692에 의거, 관련 산업 납세자(법인 및 개인 모두)에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세의 70%까지 감면한다. 또한, 60%까지 소득세를 공제한다.

5) 바이오 연료 산업

농업 원자재, 농공업 또는 농업 유기 폐기물로 생산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및 농업에서 나온 바이오 물질을 바이오 연료로 취급하며, 관계 당국이 설정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였을 때 소득세 및 부가세 감면 또는 연료운반 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6) 현대 생명공학

현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을 시행한다.

7) 특별경제구역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정부는 티에라 델 푸에고에 설립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조세를 매기지 않는다. 유동자산에 관한 수입 또는 수출 또한 세금에서 면제한다.

8) 신재생에너지

○ 아르헨티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까지 8%, 그리고 2025년까지 20%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조기 환급
- 이익으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에 손실이 생기면 세금을 감면한다. 기업의 손실보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 최소 추정 소득에 대한 세금: 이 법에 의해 인정받은 활동과 관련한 자산은 최소 추정 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금융 부채의 재정적 부담 경감: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이자 등의 재무적 책임을 감면해 준다.
- 배당금 또는 배당이윤금에 대한 세금면제: 프로젝트를 소유한 회사가 배당한 배당금은 1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 세무 증명서: 투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전기 기계 설비에 대해 국가가 60%를 돌려준다. 이는 세금을 통해 환급된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개발기금(FODER)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유가 증권 발행,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신탁기금이다.

제한 및 금지(업종)

아르헨티나 정부가 명시한 제한 및 금지업종은 없다. 이에 따라, 투자 전에 KOTRA를 통해 아르헨티나 투자무역진흥청(AAICI)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특별경제구역(Zonas Francas)

특별경제구역에서는 상업을 일반적인 관세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 수출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요 목적은 비용 절감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무역 및 산업 수출 활동을 촉진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물류저장, 상업, 공업이 대상이며, 무기, 탄약 및 식물 및 동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전을 위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아르헨티나 현행법상 23개 주와 4개 특별지역에 보세 지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티에라 델 푸에고의 경우는 주(州) 전체를 특별관세 지역으로 지정했다. 라 플라타(La Plata)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항구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로부터 70km 밖에 되지 않는 좋은 입지를 활용해 물류 중심의 보세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외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라 팜파, 산 루이스, 멘도사 등 주요 지역에 보세지역을 설치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아르헨티나에는 티에라 델 푸에고 외에 12개 주에 14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각각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라 플라타, 바이아 블랑카), 코르도바 주(코르도바), 추붓 주(코모도로 리바다비아), 라 팜파 주(헤네랄 피코), 멘도사 주(루한 데 쿠요), 미시오네스 주(푸에르토 이과수), 살타 주(살타), 산 루이스 주(후스토 다락트), 뚜꾸만 주(크루스 알타), 엔트레 리오스 주(콘셉시온 델 우루과이), 산타페 주(비샤 콘스티투시온) 그리고 산타크루스 주(칼레타 올리바, 리오 가세고스)에 위치해 있다.

관세법 제 590조에 규정된 범죄성격을 포함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역을 출입 및 통과하는 물품들은 아르헨티나 일반 세관 영역에 적용하는 세금, 관습 및 재정 규정에서 제외된다.

○ 티에라 델 푸에고(TDF: Tierra del Fuego) 지역은 남미공동시장협약에 따라 2023년까지 무관세로 상품 수출입이 가능한 특별관세 지역이다. 1972년 제정된 법 1964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국세를 감면한다.

-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 면제
- 소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 시 관련 세금 환급

○ 입지 선택 방법

아르헨티나 투자무역진흥청(AAICI) 및 주정부를 사전 접촉하면 유리한 입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공장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나, 최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유치를 위해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아르헨티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희시설의 활용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현지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외교부 산하의 아르헨티나 투자무역진흥청(AAICI: Argentine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gency)과 접촉하는 것도 좋다.

○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공단 입주 우선 검토

한국의 경우 아르헨티나로의 투자 진출이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 주요 투자는 전자제품 분야 대기업의 현지판매/영업 법인과 정부의 수입 규제 통과를 위한 현지 조립공장으로서의 아웃소싱 형태를 띤다. 최근 포스코가 전략광물인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활발하기 때문에 투자진출 시 동(同) 단지 입주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산업공단 입주를 통해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다양한 세금(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 TIERRA DEL FUEGO FREE INDUSTRIAL ZONE

규모	5,000,000㎡
위치	Sarmiento 745, Tierra del fuego, Ushuaia
임차료	토지가 주 정부 소유로 주 정부와 토지 매입에 관한 협의 진행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011-43227324/ (+54) 2901-441100 ○ 홈페이지: https://www.tierradelfuego.gob.ar/

○ ZONA FRANCA LA PLATA

규모	700,000㎡
위치	Juan Domingo Peron e Hipolito Yrigoyen S/N
임차료	1.8달러/㎡/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221) 468-0000 ○ 이메일: info@bazflp.com ○ 홈페이지: http://www.bazflp.com/

◦ PARQUE INDUSTRIAL PILAR

규모	9,200,000㎡
위치	Calle 9 y 10 Parque Industrial Pilar, Ruta 8 Km 60, Pilar, Buenos Aires
임차료	12달러/㎡/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0230) 449-6801 - 이메일: info@pip.org.ar - 홈페이지: https://www.parqueindustrialpilar.org.ar/
비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서 60km 거리로 입지 양호

◦ PARQUE INDUSTRIAL SAN FRANCISCO

규모	1,840,000㎡
위치	Santiago Pampiglione N4891, San Francisco , Cordoba
임차료	0.7~1.0달러/㎡/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54 035) 6442 -1803 - 이메일: info@parqueindustrialsanfrancisco.com - 홈페이지: http://www.parqueindustrialsanfrancisco.com/
비고	자동차 산업 위주 입주

<자료원 : AFIP,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 면적: 203㎢
- 인구: 166만
- 주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특별자치구
- 주요 기관: 주요 공공 기관 및 대학 밀집지역
- 주요 산업: 농작물(대두, 밀, 해바라기, 땅콩) 및 농업기계, 자동차, IT 및 기타 서비스 산업
- 비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주에 인구의 1/3이 밀집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권이 가장 크고 경제 중심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네우켄(Neuquen)

- 면적: 63 ㎢
- 인구: 62만 명
- 주도: 바카 무에르타
- 주요 기관: Pan American Energy 등 주요 석유회사
- 주요 산업: 셰일가스 매장지가 위치한 네우켄 주는 석유회사와 에너지 업종이 밀집돼 있다. 이 밖에도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아 어류와 과일의 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 비고: 아르헨티나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 진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법령 제26,190호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와 면세 혜택을 준다.

◦ 코르도바(Cordoba)

- 면적: 222.4 ㎢
- 인구: 139만 명

- 주도: 코르도바 시
- 주요 기관: Intel, Fiat, BMW
- 주요 산업: 자동차, IT 업종 연구소
- 비고: 자동차 생산 플랜트의 경우 대부분 코르도바시에 밀집되어있다. IT 업종의 경우 인텔 등 다국적 기업이 코르도바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이 지역은 광활한 목초 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낙농기업의 선호지역이기도 하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 '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기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FDI 유입이 많은 나라였으나 '21년 5위로 하락했다.
 - 전임 마크리(Macri) 대통령 취임 이후 '16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약 32.6억 달러로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17년, '18년에는 각 115억 달러, 117억 달러로 대폭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 아르헨티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며 기존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과 함께 FDI 유입액이 줄어들었다. '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40.1억 달러까지 줄어든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21년 경기회복에 따라 약 62.5% 증가한 67.8억 달러를 기록했다.
-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정보에 따르면 '22년 아르헨티나 투자는 150.8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리튬 등 광산업, 셰일가스 & 오일 등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활발해 짐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아르헨티나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는 광산업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리튬/셰일 가스 등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업투자법(24.196/93)을 제정,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광업 투자법 주요 내용
 - ① 세제 안정: 타당성 조사시 적용하는 세율을 30년 간 동일하게 유지
 - ② 관세 0%: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본재, 원료 수입 시 무관세
 - ③ 탐사 기간 중 세제 혜택: 이중 소득세 공제, 부가가치세 6개월 내 환급
 - ④ 감가상각: 3년간 가속상각 가능
 - ⑤ 주세 최대치 설정: 로열티 최대 3%로 상한선 설정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11716.6	6649.19	4722.65	6782.35	15087.4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아르헨티나의 대외 직접투자는 2022년 기준 23.2억 달러로 2021년 13.6억 달러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송금 규제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대외 직접투자 금액이 증가했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1725.98	1522.73	1292.48	1362.52	2323.0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 한국의 아르헨티나 투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약을 위한 대기업 진출, 자원 확보 등 누적 8.8억 달러 수준
 -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17년까지 누적기준 1.9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8년 포스코의 리튬 광산 인수 이후 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2년도 기준 8.8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 '19~'21년까지는 투자액 감소 추이를 유지하였으나, '22년 상반기 약 2.8억 달러 투자가 진행되며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포스코의 리튬 광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20년 이후 진행된 투자는 모두 광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23년 1.4억 달러 투자액이 증가하였으며, 포스코 리튬산업 관련(광업 및 건설업) 투자로 추정된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2	0	3,305	2	3,305
2022	5	0	277,400	4	277,400
2023	4	1	140,000	4	140,0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 현지 진출 우리기업 15개사,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운영 중
 - 과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심화로 현지법인 대폭 축소 및 철수('02)가 있었으며, 외환통제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 시행으로 사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12)된 바 있다.
 - 親기업 성향의 마크리(Macri) 정권 출범(2015.12~2019.12, 14년만의 우파정권)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 관심이 증가했으나, 페르난데스(Fernandez) 행정부 출범 후 보호주의로 재선회하며 관심도 하락하였다.
 -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으로 우리기업의 아르헨티나 현지 진출은 미미한 상태*이며, 포스코의 현지 리튬 생산 관련 협력업체들의 투자진출이 최근 투자 사례이다.
 - *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07% 수준
-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법인은 거의 없으며, 판매법인 위주 투자진출
 - 삼성전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TDF(Tierra del Fuego) 소재 협력업체를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 및 휴대 전화 위탁생산(OEM) 중

- 최근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 투자 업종은 광업, 제조업 집중
 - 포스코社 갤럭시 리소스(호주)社로부터 아르헨티나 광산 인수 2.8억 달러 투자('18.11월) 및 주변 광구 추가 확보('19.10월)
 - * '24년 상반기 중 1단계 생산 인프라 시공 완료 및 수산화리튬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25년 생산을 위한 2단계 후속 투자 프로젝트 추진 중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	0	3,000	1	3,000
제조업	1	0	305	1	30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4	0	277,400	4	277,400
제조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3	0	140,000	3	140,000
건설업	1	1	0	1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G Electronics Argentina S.A. (LG전자)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유통업

취급분야	TV, 생활가전 등
모기업명	LG전자

◦ HANSUNG AR S.A. (한성기업)

진출연도	1985
진출형태	법인
업종	농림/수산업/ 임업
취급분야	오징어, 새우 조업
모기업명	(주)한성기업

◦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 S.A. (삼성전자)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휴대폰, 통신장비, 생활가전 등
모기업명	삼성전자

◦ POSCO INTERNATIONAL (포스코인터내셔널)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지사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곡물, 철강 외 다수
모기업명	POSCO

◦ Korean Register, Buenos Aires (한국선급)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등록선박검사, 해운관련 정부 업무 연락, 신규등록 유치
모기업명	한국선급

◦ POSCO Argentina S.A (포스코)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강 및 비철강
모기업명	POSCO

◦ Pantos Logistics AR (판토스)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운송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LX판토스

◦ 한영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특수용기제작(포스코 협력업체)
모기업명	한영엔지니어링

◦ CHEIL ARGENTINA S.A. (제일기획)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마케팅
모기업명	제일기획

◦ 세일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23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모기업명	세일엔지니어링

○ 현대중공업

진출연도	2022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포스코 협력업체
모기업명	현대중공업

○ (주)코원이엔씨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플랜트 시공)
취급분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모기업명	(주)코원이엔씨

○ 삼진전기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모기업명	삼진전기

○ 삼진공작 주식회사

진출연도	2022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모기업명	삼진공작 주식회사

○ 포스코건설 (POSCO E&C)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플랜트건설
모기업명	POSCO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아르헨티나의 기업 설립 관련법은 기업법(Ley General de Sociedades)인 법률 제19550호로 규정되어있다.
 - 기업 설립 시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유한책임회사(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S.C.: Sociedad de Comandita), 개인기업, 지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 외국 기업 투자 시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 설립절차 면에서는 유한회사가 용이하며, 대외신용도 제고 및 현지 금융조달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 유한회사는 주로 친인척,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내국 기업에 대해 100% 주식 취득도 가능하므로 단독, 합자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 영업할 수 있다. 영업형태는 목적과 투자자본금,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세금도 다양하다.
 -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 기타 법인, 도매상 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 큰 차이점은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유한회사의 공동출자자들은 공정증서에서 회사의 정관에 서명 시 출자하기로 돼 있는 자본에 책임을 제한한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기본 자본금이 적고 설립이 간편하고, 이후 정부의 제재도 덜한 관계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유용하다. 최근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인설립에 있어 좀 더 간편해진 절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법인청(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등록되는 즉시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 외국 법인 등록 시 법인청 (IGJ) 제출 서류
 - 각 법인의 성격에 따라 하기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하기 서류로 현지 외국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모든 서류 준비에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공증인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증명되고, 해당 아포스티유(주재국 증명)와 함께 공인되어야 한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 협약).
- 1) 유효 법인 계약서 및 외국 기업의 최종 수정본 사본
 - 2) 상업등기소의 정관 요약본
 - 3) 이사회 결정문
 - 4) 기업 설립과 등록 또는 합병 과정에서 공증인에게 공증된 대표자(직원)에 의해 신청된 모든 활동 또는 주요 활동들 중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 5) 법인청과 다른 기관들에 기업을 설립하고 등록하기 위해 지명된 대리인 앞으로 된 위임장.
 - 6) 외국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함.
 - 6-1.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점, 대행사 또는 대리점을 운영함.
 - 6-2.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비 유동 고정자산 또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사용권을 보유함.
 - 6-2-1. 비 유동 고정자산과 주식 공모 규칙에 준하지 않는 기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 6-2-2. 미리 승인 받은 가장 최근의 결산액(대차대조표) 가치를 제시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 *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경영에 대해서는, 6-2-2 항목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재산과 총수입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3. 주식공모에 관련 없는 다른 기업에 참여하거나, 평소에도 미리 정해진 주식시장에 투자함.

*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청 바로 직전의 1년 간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주식의 종류, 거래량, 전체 총액,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거래소, 환율 및 증서 발행 날짜의 채권 매매 기준 가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6번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은 재무제표를 송부할 수 있음.

- 재무제표는 외국 기업에 속한 당국자들과 회계사 조합에 의해 서명을 인증받은 독립적 회계사에 의해 서명될 수 있음. 단, 외국 기업의 본국에 그러한 회계사 조합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와 함께 공증인이 발행한 회계사 조합의 부재에 관한 증명서도 보내야 함.

- 이 항목을 준수하기 위한 서류는 해외로부터 와야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에 의해 신청되어야 하며, 그 대표 권한이 공증인 또는 공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야 함.

7) 기업의 유효성과 기업이 청산 또는 재산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그 어떠한 법적 절차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8) 회사 등록 신청 결정 시 기업의 공동 출자자 또는 주주의 개별화에 대한 인증서.

9) 일단 외국 기업의 지점, 지사 또는 대리점이 법인청에 등록되고 나면,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60일의 유효기간 내에 법인청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등록된 대표자의 서명이 완료된 지점, 지사 또는 영구 대리점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함.

지사

◦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이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도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지사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시 본사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제3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은 법인대표 명의로 이뤄져야 하며, 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지사는 아르헨티나 회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계장부도 본사와 별도로 작성해 필요 시 세무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 지사는 본사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활용 또는 수행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은 본사에 있다. 그러나 본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사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법인청(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서류는 법인과 동일하다.

◦ 법인청 (IGJ) 제출 서류

- 각 법인의 성격에 따라 하기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하기 서류로 현지 외국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모든 서류 준비에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공증인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증명되고, 해당 아포스티유(주재국 증명)와 함께 공인되어야 한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 협약).

1) 유효 법인 계약서 및 외국 기업의 최종 수정본 사본

2) 상업등기소의 정관 요약본

3) 이사회 결정문

4) 기업 설립과 등록 또는 합병 과정에서 공증인에게 공증된 대표자(직원)에 의해 신청된 모든 활동 또는 주요 활동들 중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5) 법인청과 다른 기관들에 기업을 설립하고 등록하기 위해 지명된 대리인 앞으로 된 위임장.

6) 외국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함.

6-1.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점, 대행사 또는 대리점을 운영함.

6-2.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비 유동 고정자산 또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사용권을 보유함.

6-2-1. 비 유동 고정자산과 주식 공모 규칙에 준하지 않는 기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6-2-2. 미리 승인 받은 가장 최근의 결산액(대차대조표) 가치를 제시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경영에 대해서는, 6-2-2 항목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재산과 총수입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3. 주식공모에 관련 없는 다른 기업에 참여하거나, 평소에도 미리 정해진 주식시장에 투자함.

*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청 바로 직전의 1년 간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주식의 종류, 거래량, 전체 총액,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거래소, 환율 및 증서 발행 날짜의 채권 매매 기준 가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6번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은 재무제표를 송부할 수 있음.

- 재무제표는 외국 기업에 속한 당국자들과 회계사 조합에 의해 서명을 인증받은 독립적 회계사에 의해 서명될 수 있음. 단, 외국 기업의 본국에 그러한 회계사 조합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와 함께 공증인이 발행한 회계사 조합의 부재에 관한 증명서도 보내야 함.

- 이 항목을 준수하기 위한 서류는 해외로부터 와야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에 의해 신청되어야 하며, 그 대표 권한이 공증인 또는 공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야 함.

7) 기업의 유효성과 기업이 청산 또는 재산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그 어떠한 법적 절차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8) 회사 등록 신청 결정 시 기업의 공동 출자자 또는 주주의 개별화에 대한 인증서.

9) 일단 외국 기업의 지점, 지사 또는 대리점이 법인청에 등록되고 나면,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60일의 유효기간 내에 법인청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등록된 대표자의 서명이 완료된 지점, 지사 또는 영구 대리점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함.

연락사무소

○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지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같은 서류절차로 진행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빈번한 법규 개정 투자진출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규의 투명성이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여타 국가에 비교해 관련 법규들이 잘 정비돼 있는 편이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법규가 빈번하게 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투자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투자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 또는 회계사에게 법규 변경과 관련한 자문을 받아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지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지 관료의 비협조적인 업무처리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큰 비용부담을 떠안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 정치 상황에 따른 시장변동과 포폴리즘 성향 아르헨티나는 총선 및 대선에 따른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이 심한 편에 속하며, 국제시장의 변화(미국 금리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상승 등)가 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권이 바뀌는 경우,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프로젝트 및 주요 어젠다가 전면 중단 또는 대폭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진출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포폴리즘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정치 성향을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예비선거(PASO)를 통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부 여당에서는 각종 포폴리즘 정책을 시행한다. 아르헨티나는 포폴리즘이 만연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3) 정부를 사칭한 브로커의 접근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이를 이용하려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많다. 특정 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조세 특혜를 주겠다고 하며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인맥을 사칭하는 브로커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보통 브로커 측은 철저한 비밀을 요구하지만 수많은 브로커 중에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주재국 대사관, KOTRA 등을 통해 브로커와 브로커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한 사전 검증을 받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서는 안 된다. 4) 현지 지사 및 법인 설립 시 보이지 않는 장벽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 절차는 법규상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제한도 없으며 요구사항도 없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한 서류 요구, 전산망의 미 작동 등으로 1개월 정도 예상했던 시간이 6개월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투자진출 계획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글자 하나가 잘못 표기되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의 설립 및 인가를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현지 회사와 동일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수는 타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 수준이나, 처리과정이 느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 체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숙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과실송금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애로사항(폐소화 감가상각, 재투자 위험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5) 복잡한 조세제도 아르헨티나에는 수출세, 금융세, 추가부가세 등 우리 기업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금이 많다. 당초 세금 부과 목적은 2001년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정부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투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자금 회수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세금항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양국 간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6) 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암시장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그렇듯이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음성(현지어 Negro)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관행을 간과할 수 없다. 언더밸류를 비롯해 탈세, 급행료 등이 일반화돼 있다. 신정부가 집권한 이후 음성거래는 축소되고 있지만, 투자 진출 시 음성거래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며,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 회사법에 명시돼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법인청 (Inspeccin General de Justicia: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세자 번호(CUIT)를 발급받으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통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나타내며, 주주들은 이사를 선출해 사업과 업무를 맡긴다.

- 최소 2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주주는 납입자본금 내에서 책임을 진다. 주주는 국적 및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주의 다수는 아르헨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 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은 10만 페소이며, 내부 및 외부에 감사부서가 있어야 한다.

- 회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주주 총회는 결산 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일상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증자와 감자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사관리를 책임지고 이사는 연례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수는 제한이 없다(1명도 가능). 단, 주식이 상장되어 공공소유인 경우 또는 자본금이 1천만 페소를 넘을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 선임돼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2018년 4월 4일부터 주식회사는 긴급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면, 24시간 내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시 등록 24시간 후 납세자 고유번호(CUIT)가 발급된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많이 이용되는 기업형태이며,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특징은 2명 이상 50명 이하의 회원(주주)들로 참여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자본금은 각 회원이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며, 각 회원의 지분에 맞게 책임 및 권한이 주어진다.

- 회원들은 지분을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사주 총회이며, 회사 경영은 회원 대표가 맡는다. 대표는 1인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사회가 없는 만큼 모든 결정이 사주 총회에서 직접 내려지고, 즉시 대표가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 최소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관련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약 1,100달러가 적당하다고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 간 계약, 자본출자 조항, 관리책임, 출자자 변경, 내부 감사요건, 청산절차 등을 규정한 약관을 준비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나, 규제 변경 시 출자회원의 다수 동의(또는 만장일치)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특히 자본금이 7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기간이 짧고 정부의 규제나 관리가 약한 편이다.

- 출자회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다. 출자회원은 국적 및 거주지 불문, 외국계 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

- 2017년 7월 12일부터 유한책임회사는 긴급한 경우 24시간 내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시 등록 24시간 후 납세자 고유번호(CUIT)가 발급된다.

개인사업자

- 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이 형태를 선택한다. 개인 이름으로 연방정부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며, 당일에 완결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아르헨티나 법이 인정하는 만 21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단기 영주권을 소유해야 한다. 사전에 거주 소재지 확인증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발급받은 후 이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나면 납세자 고유번호(CUIT)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영업활동은 물론 일반 시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납세자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는 관할 시청에 영업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영업거래 규모에 따라 매월 납세금인 영업세가 정해지며, 관할기관은 시청 세무서다.

-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 전부를 갖는 동시에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는 대외적으로 개인의 본명 또는 다른 가명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단순주식회사

- 사업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기업설립의 형태이다.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법인청(IGJ)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특별시에 설립되는 회사들을 책임지고 있다. 단순주식회사(SAS)는 기존 설립형태보다 비교적 쉽고 간편하며, 디지털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한 개인 회사이다.
- 기존 회사 설립 형식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설립 시 필요한 자본은 최저임금의 두 배로 부담이 낮다. 또한, 24시간 안에 등록이 가능하다.
-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모든 서류는 TAD 디지털 공인 인증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을 통해 설립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법인청(IGJ) 산하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 공증인을 통해 설립될 시 공증인은 TAD의 라이선스를 가진 사용자여야 한다.

단순 동업회사

- 동 회사 유형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초한 회사이다. 단순 동업회사는 미국의 PARTNERSHIP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본 영업체는 자본을 출자하는 회원 그리고 기술 및 지식을 출자하는 회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의 관계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동업 합의도 인정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업자 간 서면계약이 권장된다. 각 동업자는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지며,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 동 업체의 존속은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동업은 동업자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서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동업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따른다.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양한 이유로 (파트너가 무능력자로 판결을 받거나 동업합의에 따라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DLA PIPER

전화번호	+54 11 4114 5500
주소	Av. Eduardo Madero 900, C1106 CABA
홈페이지	https://www.dlapiper.com/es-es
이메일	https://www.dlapiper.com/en/contact-u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대표이메일 없으나 변호사 정보 및 메일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www.dlapiper.com/en-ar/people#t=All&sort=relevancy&f:CountriesID=[Argentina]

○ Marval o'farrell & mairal (로펌)

전화번호	+54 11 4310 0100
주소	Av. Leandro N. Alem 882, C1001 AAQ, Buenos Aires

홈페이지	https://www.marval.com/
이메일	marval@marv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아르헨티나 대형 로펌으로 여러 분야 법무 컨설팅 진행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체 자료〉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 외환관리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e Argentina)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1935년 5월 28일 설립되어 통화공급을 조절, 화폐가치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크리스티나 정부 집권시 심화되기 시작한 외환통제로 인해 공식환율과는 별개로 암(暗)시장환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높은 물가상승률,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추락했고, 비공식 환율과 공식 환율간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또한 수입대금 송금에 대한 규제 및 개인의 달러 구매까지 규제를 시행하며, 달러 수요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 마크리 정부(2015.12.10.~2019.12. 9.) 집권 기간에는 외환 규제를 완화시켜 송금, 예치 관련 규제를 거의 폐지했다. 친 시장주의 정책을 펼쳤던 전임 마크리 대통령은 기업의 환전, 배당금과 수입대금 등의 외환송금을 자율화하는 등 다양한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그러나, 현 알베르토 정부(2019.12.10.~)에서는 외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는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놓여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는 동안 외환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시 이행키로 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서 외환 송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입을 위한 대금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이 과실송금을 진행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재 아르헨티나 일반인은 은행에서 월 200달러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보조금을 받는 경우 달러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가하여 외환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 규제

○ 크리스티나 전 정부의 외환규제

- 아르헨티나 외환규제는 2005년 Roberto Lavagna 경제장관이 도입한 조치로, 투기자본으로 인한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입 외환의 30%를 일정한행에 강제 예치토록 함과 동시에 365일간 유입된 외환의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규제였다.

- 또한,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2011년)부터 외환규제를 더욱 강화해 수입대금 송금에 대한 규제 및 개인의 달러 구매까지 규제하기 시작했다. 현지의 달러 구매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공식 환율과는 별개로 암시장환율(통상적으로 Blue라 칭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높은 물가상승률,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추락하면서 비공식 환율과 공식 환율간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 2015년 12월, 외환 규제 철폐

- 2015년 12월 출범한 마크리(Macri)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첫 번째 경제개혁으로 외환규제 철폐를 선택했다.

- 은행 강제예치제도를 폐지하고 국외반출 금지기간을 120일로 단축하였으며, 2017년 1월에는 재무부 부령(1-E/2017)을 통해 아르헨티나 유입 외국자본의 120일 국외반출 금지조치를 철폐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완전한 자유화를 도모했다.

- 다만, 외환 규제 철폐로 인해 페소화 가치는 30% 이상 평가절하됐다. 이전부터 매년 30~40% 수준으로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페소화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다양한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는 페소화 평가절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더불어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외화를 조달받는 대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금융간섭(외환 관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 외환송금규제

- 외환 송금 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했던 사전허가제가 폐지되어 전임 정부보다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송금 시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 1) 개인 자금(선물, 가족소비, etc.)
- 2) 해외 거주인의 연금 또는 장학금, 기부금 등
- 3) 개인 여행 관광
- 4) 해외 거주목적 소비
- 5) 외국 투자
- 6) 수입
- 7) 그 밖의 다른 이유는 중앙은행과 협의 가능

- 다만, 현재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과실송금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수입을 위한 대금 송금까지 규제하고 있어 투자진출기업과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 외화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령인의 개인정보 및 수령인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송금인은 아르헨티나 소재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송금 전 해당 은행을 통해 송금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전에 송금 금액과 수수료를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 마찬가지로 외화를 송금받기 위해서도 아르헨티나 소재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송금받은 외화는 외화 그대로 예치되며, 예치 수수료는 페소 계좌에서 지불된다. 평균적으로 자금의 계좌이체는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이루어지나, 예금자와 송금자의 정보가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시 자금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내국인 외국투자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communication “A” 7030(2020. 5. 28. 발표)을 통해 외환규제 강화

- 동 조치는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데 필요한 달러 구매를 제재하는 것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가 없을 시 공식적으로 달러를 구매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송금이 불가능하다.

- 아르헨티나 채권단과의 협상일이었던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협상일이 미뤄지고 현지 경기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조치가 연장 중에 있다.

- 동 조치로 인해 수입대금을 송금해야하는 모든 현지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달러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현재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당국의 외환규제 조치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5월 기준 현재 수입업체들의 달러구매 허가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수입승인허가서를 A, B 타입으로 나눠 달러화 구매를 최대한 규제하고 있다. 수입 대금의 선송금을 막고 수입품 통관 완료 후 최대 180일 경과 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등 외환규제를 강화하여 수입관련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

○ 현재 신규 수입시스템(SIRA)과 연계하여 외환구매를 승인하는 SIRASE 시스템 사용

- 외환구매 및 송금을 수입 승인·통관 이후 60일, 90일, 180일(수입 승인 시 배정)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한국 기준 수출 후 최대 8개월 이상 수입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 특히, 신규 수입시스템의 경우 수입 승인 기준이 모호(이전 시스템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5%까지는 문제 없이 승인)하고, 수입자의 재정 능력 및 네트워크 활용력 등에 따라 수입 승인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USD = 231 ARS (2023.5월, 공식환율)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65.8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49.3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5
비고	월 최저임금(Salario Mnimo, Vital y Mvil)*: 84,512 아르헨티나 페소(365.85달러) *2023년 5월 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 노동부(<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capital-social-se-actualizo-el-monto-del-salario-minimo-vital-y-movil>), CP Jorge Vega, SECEIC(생산노동조합), Clarín>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고용계약은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신계약’으로 간주한다. 수습 기간은 3개월(90일)이고, 삼자협약(정부, 노동조합, 상인조합)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구두로도 채용조건 합의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자동으로 영구 채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돼 영구 채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비정기 근로조건의 계약은 계절적 또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한해 체결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연간 6개월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계약 시 신원명세서, 건강진단서 등 일반적인 내용은 보통 생략하지만 확실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처리가 우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시간

- 일반 근무: 주요 근로시간은 주 5.5일(월~토 오후 1시까지), 1일 8시간/최대 9시간, 1주 40시간/최대 45시간
- 야간 근무: 오후 교대(Swing Shift)를 제외한 야간근무(9 pm~6 am)는 1일 7시간 초과 금지
- 위험직종의 경우 최대 1일 6시간, 1주 36시간 초과 불가
- 초과근무 수당
 - 주중 초과근무(월요일에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기본수당의 50%
 - 주말(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기본수당의 100% 추가
 - 초과근무는 하루 3시간 이하, 1달 30시간 또는 1년 200시간 이하로 제한

휴가

1) 정기휴가(연간 Calendar Day 기준)

-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에 한 번씩 정기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휴가일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며, 정기휴가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 정기휴가일 기준
 - 6개월 미만: 근무일 20일마다 1일로 산정(약 한 달에 1일)
 - 6개월~근속 5년: 14일
 - 5년~10년: 21일
 - 10년~20년: 28일
 - 20년 이상: 35일
- 법정휴가의 경우 아르헨티나 노동법에 따라 2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보통은 회사 고용회계사나 변호사가 산정해준다.
 - 법정 휴가급여 산정식: (월 급여 x (30일-휴가일)/30일) + (휴가일 x 월 급여 x 120%)
- 정기휴가 기간은 10월 1일과 4월 30일 사이에 주어지며, 고용주에 의해 휴가일이 결정될 경우 노동자에게 4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비정기휴가

- 출산 휴가: 90일(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로 이후 무급으로 1년의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출산 휴가의 경우 노동자와 회사가 협의 가능하나 일수는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최소 출산예정일 30일 전에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출산휴가의 경우 월급은 ANSES에서 지급)
- 병가: 3~6개월.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담당 의사가 결정한다.
- 기복 휴가: 배우자, 부모, 자식: 3일 / 형제자매: 1일
- 법정 결혼 휴가: 10일 연속휴가. 정기휴가와 합칠 수 있다.
- 기타 휴가: 중등 또는 대학 교육기관의 시험(시험당 2일, 연간 최대 10일) / 현혈(연간 최대 2일) / 이사(2일)

해고

- 아르헨티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국가 중 하나다. 정부 측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
- 모든 근로자는 2004년 4월 발효된 노동법 제25877호에 의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횡령, 폭력 또는 심각한 범법행위 등에 참가하지 않은 한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계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법적인 근거나 근로자의 위반이 없으나 고용주의 임의 결정에 의한 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고용주는 해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우편을 통해서 해야 하며, 해고 사전통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해야 한다.

- 해고 통지 기간

- 수습 기간의 근로자: 15일 전 통지
- 5년 미만 근속 근로자: 1개월 전 통지
- 5년 이상 근속 근로자: 2개월 전 통지

- 해고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 물색을 위해 1일당 2시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 휴가를 축적해 1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노동법 245조)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의 급여 보상금(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1년 일한 것으로 간주)
- * 5년 근무한 근로자 기준, 5개월의 월급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전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사전 통지하지 않았을 시, 1개월분의 급여 지급)
- 미지급 상여금, 휴가보상금
- * 급여보상금의 기준은 근무 마지막 해의 제일 높은 급여다.

- 업체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상기 비용의 50%로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에서는 직원해고 시 크고 작은 소송 제기로 인해 해고가 상당히 어렵다. 소송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측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해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근로자 해고 시 해고 보상금 지급 후 추가적인 소송 및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를 방문해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노동부

-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trabajo>
- 전화: +54 0800-666-4100/0800-222-2220
- 주소: Av Leandro N. Alem 650, Capital Federal, Argentina
- 메일 주소: consultas@trabajo.gob.ar

퇴직금

- 아르헨티나의 경우 퇴직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받는다.

○ 근로자의 정년퇴직: 남성기준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 및 근무 30년을 완료했으면 퇴직할 자격이 있으며, 회사로부터는 퇴직금을 받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사임: 근로자가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 후 복직하도록 허가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 보상금(노동법 245조)의 25%를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사망: 부당해고 보상금의 50%

○ 근로자의 무능력 또는 장애로 인한 계약해지: 근로자가 장애를 얻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그의 해고를 원할 시 부당해고로 간주, 보상금을 100% 지불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가 더이상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부당해고 보상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퇴직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 아르헨티나의 사회 보장세율은 고용주 23%, 근로자 17%며, 고용주가 근로자 부담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은 6%며 근로자 부담은 3%다.
- 근로자 선택에 따라 사회보장제 중 의료보험 부담액(9%)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민간 의료보험 선택이 가능하며, 민간 의료보험이 월급의 9% 이상일 경우 차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고용보험

- 최근 3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퇴직자는 국가가 배상하는 고용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정식채용 및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회보장제를 납부하였으면 고용보험 권리를 얻는다.
- 실직 3개월 안에 서류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수당의 권리를 잃는다.
- 고용주가 지불하며, 약 0.89~1.11% 정도다.

산재보험

고용주가 지불하며 근로환경에 따라 지불 비용이 달라진다. 최저 0.5%~최대 5%에 달하며, 평균 1.5%다.

국민연금

- 아르헨티나에서는 30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65세에 달한 남성 근로자와 60세에 달한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의해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관련세는 고용주 11.7~14.88%, 근로자 11%다.

가족수당

-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고용인이 내는 관련 세금은 아르헨티나 사회보장기관 ANSES(Administracin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의 기금으로 쓰인다. 아르헨티나 사회보장기관에서 지불하는 대표적인 가족수당으로는 임신 및 출산, 결혼, 입양 등이 있으며 각 가족 수마다 수당을 지급한다.
- 가족수당세는 고용주 부담으로 7.5%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국세(國稅)
- 세율: 35%
- 과세대상: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기금, 외국 법인 및 지사 등 아르헨티나 소재 모든 법인
- 과세소득: 법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의 경우 아르헨티나 발생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 신고시기: 사업연도(tax year) 종료 후 5개월 이내이며, 납부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납(豫納)하며 신고 시기에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신고방법은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에 세무조정이 완료된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통상적으로 역년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12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 이중과세방지 협정: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15개 국가로 해외에서 유사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부과한 세금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과는 아직까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개인소득세

- 국세(國稅)
- 세율: 5~35%(영주권자), 24.5%(비 영주권자),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과세대상: 아르헨티나 국적자(귀화 외국인 포함), 영주권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가진 외국인
- 과세소득: 거주자는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발생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며, 아르헨티나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을 통합해 최고 35%까지 부과한다.
 - 소득세 관련 누진세율의 경우, 소득세 과세 불가액(Base minimo no Imponible)을 정해 해당 과세 불가액보다 연 수입이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9~35%)
 - 소득세 과세 불가액은 2023년 11월 기준 연 수입 23,760,000페소(공식환율 기준 약 66,000달러)*이다.
 - *월 수입 기준 최저임금 15배까지 소득세 과세 불가액으로 책정(법령(Decreto) 473/2023)
 - 2021년부터 연 2회 지급되는 보너스(Aguinaldo)는 소득세 과세 불가액으로 책정되었다.

부가가치세

- 국세(國稅)
- 부가세의 경우 매달 부과하며, 제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업체가 지불한다.
- 아르헨티나는 품목에 따라 부가세를 10.5%, 21%, 27%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세율을 21%로 책정한다.
 - 통신, 가스, 전기 및 상하수도(공공서비스): 27%
 - 자본재,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신문, 잡지, 의료 등: 10.5%
- 또한 수입 시 추가부가세 제도가 있는데, 부가세 21% 기준 추가부가세 20%, 부가세 10.5% 기준 추가부가세 10%를 부과한다.
 - 수출용 원자재는 추가부가세가 환급 가능하다.

특별소비세

- 국세(國稅)
- 특정 상품 소비에 대한 부과세금으로 품목별로 차등이 있다. 주로 담배, 주류 또는 사치품에 부과한다.
- 담배 : 27~70%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타바코의 경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음.)
- 주류 : 맥주 (14%), 그 외의 주류의 경우 도수에 따라 20~26% 부과

특별소득세

- 국세(國稅)
- 코로나19 이후 신설된 세금 중 하나이며, 2억 페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부과하는 특별세로 자산규모에 따라 2~3.5%를 부과한다.

금융거래세

- 국세(國稅)
- 세율: 0.6% (신용거래), 1.2% (당좌계좌거래)
- 2001년 4월 법률 제25413 및 제25414호에 의거하여 신설된 세금으로 급여계좌 및 대출계좌 금융거래 시는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또한, 법령(Decreto)301/2021에 의거, 일반인 및 영세업체, 단일세(Monotributista) 사업체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 기업에 부과)
- 금융거래세는 IMF 및 아르헨티나 산업계가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惡法)이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거래세

- 국세(國稅)
- 세율: 1.5%
- 재산권 이전에 따른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 성격은 아니다.

개인재산세

- 국세(國稅)
- 세율: 0.50~1.25% (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
-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주자는 해외 재산 포함,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주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한다.
 - 재산세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재산을 포괄해 부과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보유재산만을 기초로 한다. 외국인이 근로의 목적으로 5년 이하 거주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내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매출세

- 주세(州稅)
- 모든 상업활동에 부가하는 세금이며, 상품의 특성 및 상업 종사자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보통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한다.
- 세율: 0.75~5%
- 주정부 조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차 산업(농목축, 어업, 광업) 1.5%, 2차 산업(제조업, 건축업) 1.5%, 3차 산업(서비스, 유통)에는 3.0%를 부과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수도)의 경우 산업 구분 없이 대부분 3%를 부과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경우 일반 3차산업(유통)에는 5%, 서비스업 3.5%, 1차산업(농목축업, 광업 등)은 0.75%, 일반 제조업에는 1.5%를 매출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인지세

- 주세(州稅)

- 세율: 1.0~2.5%
- 거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나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가 부과된다. 참고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부동산 양도(2.5%), 상업 목적(0.5%)에 대한 임대 및 전대에 부과한다.

부동산세

- 주세(州稅)
- 매년 부과하며, 세율은 부동산 시장 가격 및 주정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상이하다.

시세(市稅)

- 각 도시청(都市廳)은 산업 안전, 공공 위생, 조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달러 구매세

- 국세(國稅)
- 은행에서 공식 환전을 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23년 10월 현재 30%가 부과되고 있다.
- 달러 구매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시에도 부과되며, OTT 서비스 등으로 달러로 결제되는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8%를 부과 중이다.
- 또한, 동 달러 구매세 외 35%의 세금이 소득세 명목으로 따로 부과되고 있으나, 이는 결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원산지 표시 등)과 저작권(문학 작품, 예술 작품, 그림이나 사진, 건축 디자인 등)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아르헨티나 국가 기관인 산업재산권기구(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dustrial: INPI)가 관할한다.

아르헨티나에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는다.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출원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갱신은 불가능하다.

디자인은 출원 후 5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2차례에 걸쳐 5년간 연장 가능하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무기한 갱신을 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저자가 일생 보유하며 사후 75년간 상속인이나 수탁인이 권리를 보유한다.

아르헨티나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법률 24.481호, 시행령 580/1981 등이 있다. 화학 및 약학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118/2012, 546/2012 및 107/2012이 있다. 또한, 생명공학 발명이 특허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2015년 9월 25일에 시행령 283/2015가 발효되었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5월 현재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 특허(실용신안 포함),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투자법인 철수

- 민법 48조에 따르면 법인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 해체는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체는 법에 따라 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나 각 조항의 악용/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자사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더 이상의 제품 취급이 불가능할 때 법인 해체를 시행한다.

- 법인의 해체 결정 또는 민법 45조에 의거한 관련 기관의 개입으로 판사는 일시적인 영업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법인 해체 유형

- 법인 해체: 민법 48조 1항. 이 경우에 협회 혹은 재단에 위 법을 적용한다. 협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 재단의 경우 정관에 해체와 폐업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체를 하려면 임원 수의 최소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 법인 해체는 법인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더 이상 자신의 사회적 임무를 시행할 수 없을 때
 -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다했을 때
 - 사회기관에 의해 법인의 업무를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을 때
 - 계속되는 마이너스 실적으로 인해 법인의 자본금을 잃어갈 때
 - 법정준수 최소 자본금보다 법인의 자본금이 낮을 때
 -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비투표 주식의 명목 가치가 법인 자본금의 절반을 초과하고 2년 내에 그 비율 회복이 어려울 때
 - 이 밖에 모든 법에 규정된 다른 원인

- 한 법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체를 원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 소유권 양도: 법인 판매
 - 회사의 청산: 활동 중단, 채권자 및 주주에게 지불 그리고 회사의 폐쇄
 - 채권자 회의: 채권자를 상대할 수 없는 경우 법은 강제로 채권자를 소집할 수 있거나 채무자를 통해 할 수 있다.

- 법인 청산: 법인의 해체 신청으로 인해 법인의 청산 기간이 시작된다. 이러한 청산 기간 법인의 이름에는 법인 청산 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법정 성격을 상실시킨다.

- 청산 기간의 개시와 함께 경영자는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표권한은 소멸해 청산인에게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청산 작업을 완료하면 청산인은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나누어야 하고, 자본금을 받은 주주는 자본금에 대한 1%인 이전에 관한 세금을 내야 비로소 회사의 청산을 완료할 수 있다.

3) 해산 및 청산인 임명 시 필요 서류

-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49조 2항에 의거한 공증인(공정 증서가 사용된 경우) 또는 변호사(개인 증서가 사용된 경우)의 전문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 신청서: AFIP 또는 Mi Argentina를 통해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모든 구성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제외하고, 인증 및 감정 절차 준수 규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109조에 따라, 청산인(들) 자격 수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 심사 전문가에 의해 필요한 기술사항
 - 기업 해산 및 청산인 임명이 결정된 공동 출자자 회의의 정원 및 과반수
 - 회의를 소집한 이사회 의 정원 및 과반수
 - 유한회사의 경우, 만장일치가 아닐 때 법률 제19550호 159조에 따라 기업의 법인 계약서에 명기된 바에 의거해 경영자들이 공동 출자자 회의를 소집했는지 여부
 - 해산의 사유에 대해 표명하고, 해산의 사유에 의거해 정원 및 과반수를 기술하며, 해산 승인은 유효 규정에 따름.
 - 청산인(들) 임명에 대한 기술(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실거주지 및 특별 거주지, 국적, 사업자 번호(CUIT))
 - 청산인 직무 수락
 - 청산인(들)의 특별 거주지 고정
 - 직무 수락 또는 임명된 청산인(들)의 특별 거주지 제정이 신청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심사 전문인은 임명자의 신원과 직무 수락 및 특별 거주지 제정을 증명했다는 것을 밝히는 법적 신고서(Declaracion Jurada)를 작성해야 함.
 - 자연인이 아닌 공동 출자자가 등록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술해야 함.
 - 법인, 관할, 영리 기업의 구성 및 참여 능력에 관한 정보
 - 신탁 계약법 제24441호 시행령 제02/2006호
- 외국기업 마지막 연례 보고서 발표일, 마지막 연례 보고서 승인일, 마지막 대차대조표 발표일(법 제19550호 118조)
 - 공동 재산 가치(주식회사의 경우에만 해당,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436조)
 - 주식이 유상 또는 무상 취득됐는지 기술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437조)
- 공정 증서 또는 개인 증서 원본의 최초 증명(법인청 결정문 제7/05호 부속서 A 36조 1항 및 2항에 의거)
 - 회사해산을 결의하거나 선언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회의 의사록과 그 참석 기록 또는 공동 출자자 회의록 또는 기업 결정문
- 이해관계자, 법적 대표자 및 심사 전문인이 서명한 서류(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음)와 함께 다음 서류 증명 요구
 - 회의 소집 공지: 주식회사의 경우, 관보에 게재한 소집 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법률 제19550호 10조 b항 및 98조에 따라, 기업의 해산 결정 및 청산인 개별화, 특별 거주지가 제정된 날짜를 포함한 관보 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법인청(IGJ)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76조 및 77조에 의거, 사전 보증 수행을 증명한다.
 - 법인청 결정문 제7/15호 부속서 A 184조에 따라, 규칙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기업의 해산 신청은 현 절차보다 이전에 또는 동시에 사전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이러한 절차 완료 시, 국가 관보(Boletín Oficial)에 법인청산을 공표한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 중남미 3위 경제 대국, 스페인어권 남미경제의 중심축

- 중남미에서 GDP·교역 면에서 멕시코·브라질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 인구 약 4,600만 명으로 비교적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3년 1인당 GDP(PPP 구매력 기준)는 27,260달러로 전망된다. 26,466달러였던 '22년에 비해 약 3% 증가하며, 중남미에서 칠레에 이어 2위에 위치하고 있다.

- 풍부한 광물·에너지·식량자원 보유 국가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 리튬 세계 3위, 셰일오일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이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국 기업 중 포스코가 살타(Salta)주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지역에서 수산화리튬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 리튬 생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아르헨티나 동반 투자진출이 이뤄지는 등 한국기업 진출 확대의 계기가 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수출의 약 28%는 농축산물 및 광물이며, 농산물 가공품이 약 39%를 차지하는 등 농축산물이 수출 및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온라인 유통망의 발달

-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오프라인 유통망이 강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유통망이 급격히 성장하며 소비패턴의 변화를 야기했다.
- '21년 온라인 판매는 '20년 대비 68%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2년도 마찬가지로 성장세 유지하며 구매량은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액은 87%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어 구매량으로 판단하는것이 적절하다.)
- 데스크톱(Desktop)을 통한 구매보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구매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높은 시장 진입 장벽

- 농업과 목축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으로 소비재 및 경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자본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제(LNA)를 시행 중이다.
- 또한, 소비재나 의료 관련 품목의 경우, 국제 인증(미국-FDA/EU-CE:CFS) 및 선진국 판매 이력(reference)을 중시하는 시장이다. 현지 인증 기관 제품 등록 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에 비해 한국 인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등록이 까다롭다. 다만, 의료 기기의 경우, 2023년부터 현지 식약청(ANMAT) 제품 등록시 한국발행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인정하여 제품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 경쟁력 확보 중요

- 아르헨티나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제품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회원국으로 회원국간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무관세로 교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남미공동시장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 역내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 아르헨티나는 인구 약 4,600만 명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인구 수 기준으로 중남미 4대 시장이다.

- 아르헨티나는 실업률 8.3%(EIU, 4월 자료 기준)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높은 금리와 외환 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자가격리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또한, 현지 통화인 페소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 인상 등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2022년 연간 누적 인플레이션 94.8%)을 겪고 있어 내수시장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EIU〉

소비 성향

- 가격에 민감한 현지 시장

- 2018년 5월부터 심화된 경제 악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 긴축정책으로 인한 페소화 평가절하로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단순가격을 비교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에는 품질, 기능 등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격 이외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대체로 한국 제품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의 아시아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한국 제품 가격이 일본 및 미국 제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구매 결정 시 대부분 더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제품인 전자기기,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일반소비재가 아닌 품목의 경우, 가격보다는 브랜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이어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

- 바이어 특성

- 기존의 취급상품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수입상이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해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오랫동안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기업 진출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마크리 정부(2015.12.10.~2019. 12. 9.)의 수입규제 완화를 계기로 아시아 제품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점유율은 낮다. 또한, 아시아 제품은 중국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한국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특정 제품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는 무료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첫 오더는 제품 검증을 위한 것으로 수량이 적다.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즉각적인 바이어의 관심을 끌어내기 어려우며, 바이어 발굴 시 단기적인 성과 기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비문화의 새로운 주인공: 여성 소비자

-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 소비자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 취업자들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고, 한 가정의 소비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가 많아졌다. 아르헨티나 국내 총 휴대폰 판매의 35%가 여성 고객에 의한 것이며, 여성 고객들의 구매력은 여성 소비가 많은 일부 업종을 벗어나 자동차, 스포츠, IT 분야까지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지속

- 아르헨티나는 빠른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서비스,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인터넷 구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시장에서 구매하던 식료품, 일반 소비재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 구매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 현재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 93%, C2C 7%로 구성되어 있으며, B2C 형태가 압도적이다. 인터넷 시장의 꾸준한 성

장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앞으로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 대부분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 브랜드는 알지만, 해당 기업이 한국 기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과반수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아시아 제품이라는 편견이 있어 중국제품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 현재 급격한 폐소화 가치하락(depreciation)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태로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한국 제품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제품의 아르헨티나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현지 또는 인근국 생산 등) 및 원활한 사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현지 A/S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한류 K-Culture(K-Movie, K-Pop, K-Beauty 등)가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며, 기존 고객층 외 신규 고객 유입을 돕고 있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LG전자는 휴대폰과 LCD/플라즈마 TV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바이어 특성

-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연상하며,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8년도부터 겪고 있는 급격한 폐소화 가치하락(depreciation),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저가 제품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 비교시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과 비교시 장점 및 차이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수입상들은 현지 수입 관련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현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가 많은 제품이나 가격경쟁력 혹은 차별성이 있는 제품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 수입상이 다른 국가의 유사제품 가격을 제시하며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는 사양, 성능, 품질 등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설득할 필요가 있다.
 -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신규 거래 성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거래처를 한 번 결정하고 나면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한국 기업이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거래를 시작해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공급업체를 발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편이다.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샘플을 받아 수 차례에 걸친 테스트를 진행하며, 제품 검증을 완료하고 난 후 주문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 첫 거래에서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는 것 또한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거래를 중단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천천히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수입상은 제품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데, 이는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수입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리점권(에이전트십) 부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독점으로 이해가 되며, 구두(口頭)로도 쉽게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점 선정 시 독점권한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아르헨티나 바이어 접촉 가이드

- 거래제의 시 우선 이메일로 가볍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발송하기 이전에 우선 e-메일 또는 팩스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알게된 경로를 밝히고, 회사, 제품, 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빠른 연락을 선호하는 바이어들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한 후 왓츠앱(WhatsApp)으로 교신을 희망하기 때문에 몇 번 이메일로 연락을 진행한 뒤 왓츠앱으로 교신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수입 관행

-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많으며, 관행상 초기에는 T/T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 아르헨티나 폐소화가 급격한 가치하락을 겪으며, T/T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바이어도 존재한다. 대부분 T/T로 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D/A, D/P 결제조건을 요구한다. L/C 거래는 개설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해 기피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및 외환 송금규제 조치로 인해 수입 대금 선송금은 어려우며, 현지에 제품이 수입 통관 완료된 이후 60일, 90일, 180일(수입 승인 과정에서 기간 지정) 경과되어야 수입 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자에게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T/T 거래로 100% 지급 후 선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 현지 관행상 'Contract Sheet'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Proforma Invoice로 대체할 수 있다. Proforma Invoice에 바이어의 Counter Sign을 받아서 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Claim 발생 시 해결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반 선적서류 작성은 바이

어가 계약 시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현지 상황에 의해 세관 등에서 요구하는 별도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의 항만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지체 비용이 커진다. 특히 일부 선금 송금 후 선적하고 잔금은 선박 도착 직전에 송금하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선적서류가 잘못되면 문제가 크다.

-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현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 과거 국내 모(某) 기업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 밸류를 해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현지 기업을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5) 검토 결과 문의는 일주일 뒤에

-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우편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 예상 일에서 약 일주일 정도 경과 후 자료의 수령 여부 확인과 검토 결과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자료 송부 후 곧바로 문의하면 거래 제의 업체 쪽에서 너무 독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 결과를 문의할 때는 먼저 e-메일 또는 팩스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접촉은 지양, 화상상담을 통한 접근 필요

-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연락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진행해 왔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출근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 바이어와의 면담 요청 시 이전에는 면대면 상담을 중요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상담이 많아지는 추세다.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바이어의 경우 비대면 상담(화상상담)을 통해 빠른 진행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화상상담을 진행하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과 비즈니스 미팅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사전 약속을 잡고난 후 하루나 이틀 전 다시 전화를 해서 약속장소, 시간, 변동사항 등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1년 정도의 출장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담 가능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레터 또는 이메일로 방문 신청을 하고, 방문 며칠 전에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1, 2월과 크리스마스 전후는 여름휴가 기간이고, 7월 중순은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인사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제3자가 소개해주는 것을 선호하며, 모임에서는 주최자가 소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이 직접 인사를 한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했는가"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소개했는지를 판단한다.

초면에 하는 인사는 정중해야 하며, 연장자 또는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인사해야 한다. 악수는 눈을 맞추고 환하게 웃으면서 해야 한다. 눈을 계속 맞추는 것은 호감의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사는 악수지만 머리를 살짝 숙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정확히 눈을 바라보며 신뢰감을 주는 것이 좋다.

3) 명함과 호칭

초면에는 당신(우스뎃: Uste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주최 측에서 먼저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이름으로 호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이름으로 남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소개를 들을 때 스페인어로 된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반복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직위는 회사에 따라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레지덴떼(Presidente)는 사장, 디렉토르 헤네랄(Director General)은 사장 또는 이사, 디렉토르(Director)는 이사 또는 부장, 헤렌떼(Gerente)는 과장 정도이다. 남성에게 세노르(Seor), 기혼여성에게 세노라(Seora), 미혼여성에게 세노리따(Seorita)를 성(姓) 앞에 붙인다. 명함을 보면 성(姓) 앞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이름 앞에 학력을 붙이면 훌륭한 존칭이 된다. 박사는 독토르(Dr.; doctor), 석사는 리센시아도(Lic.; licenciado), 공학석사는 인헤니에로(Ing.; ingeniero)로 표기한다. (예: 리센시아도 로페스 Licenciado Lopez)

물론 아주 친해지면 호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호칭을 부를 때 성명을 보고 성(姓)과 이름(名)을 잘 구분해야 한다. 명함은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름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쪽으로 명함을 건네야 한다. 가능하다면 스페인어로 번역한 명함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영문으로도 충분하다.

4) 선물

아르헨티나인은 비즈니스 상담에서 초면에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단, 정부 인사 방문의 경우 통상 선물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선물을 할 경우는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열쇠고리, 봉투 등 가벼운 선물이 좋다. 바이어 관리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고, 연말에는 주요 거래선에 와인, 종합 선물세트 등을 선물하면 좋다. 7월 20일은 '친구의 날'로, 이때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e-메일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면담을 신청한 쪽이나 방문을 하는 쪽에서 예의상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통 아르헨티나에서 흔한 물건인 가족, 포도주 등을 선물한다. 칼, 가위 등과 같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물건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입규제가 심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한국적인 선물(한지 명함 통, 한지 보석함 등)의 반응이 좋으며, 유명 메이커인 위스키, 프랑스산 샴페인, 수입 초콜릿이나 꽃도 선물로 무난하다. 선물은 받는 즉시 앞에서 열어보고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5) 식사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한국음식 중 냄새가 심한 김치, 된장, 마늘, 고추장, 매운 음식, 생선 류(회 포함), 국물 있는 음식 등은 대부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스테이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음식이 무난하고, 식사 시 포도주는 한국의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주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이나 저녁식사가 일반적이며 대체로 집으로 초대할 하지는 않는다. 주로 오후 8~10시에 저녁식사 약속을 잡고 주말에는 더욱 늦게 식사 약속을 잡는다. 오후 4~6시 사이에는 커피와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다.

○ 유의해야 할 식사 예절은 다음과 같다.

- 모임의 주최자가 자리를 지정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주최자가 먹으라고 권할 때까지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종업원을 부를 시에는 손가락을 세우며 'mozo(모소)'라고 부르며 된다.

- 식사 시 입으로 소리를 내며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포크는 왼손에, 나이프는 오른손에 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헨티나는 대부분 고기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기를 자를 때 접시를 칼로 그어 불쾌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와인을 왼쪽으로 따르는 것은 큰 실례이며, 식사는 즐기는 것이라 여겨 식사 중에는 사업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아르헨티나 측에서 먼저 주제를 꺼내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는 와인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문화가 있는 만큼, 와인에 관해서는 많은 금기와 예절이 있다. 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와인 따르기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르헨티나의 평균 식사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며, 식사를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다. 따라서 식사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배를 불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것 또한 식사 목적이다. 음식이나 와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즐기는 것이다. 비즈니스 만찬에서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가벼운 식담 속에 협상과 거래의 메시지를 은근히 깔아 주고받는다. 음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인을 초대할 때는 의자가 있는 식당이 좋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식당을 매우 불편해하며,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 모임 주최측에서 아르헨티나 전통차인 마테차를 제공하는 경우 매우 쓴맛에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인에게 마테차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자 의식과 같다. 마테차의 경우, 하나의 빨대(Bombilla)를 여러 명이 나눠 마시는 방법이 통상적이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이기에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으나, 너무 강한 거절을 하기보다는 '노 그라시아스(No gracias)'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르헨티나인들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만 마테차를 권하는 것이므로, 거부감이 심하게 들지 않는다면 같이 마시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복장

아르헨티나 기업인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업계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평범한 의상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남성은 정장에 어두운 색깔의 타이를 착용하고, 여성은 짧은 바지보다는 여성복이나 블라우스를 입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기업인 중 상담 시 노타이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넥타이는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중간색을 추천한다. 또한, 양복 착용 시 와이셔츠는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눈에 띄는 색이나 패턴이 들어간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복장뿐만 아니라 단정한 머리스타일과 정돈된 모습은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다. 향수의 경우, 너무 강하지 않은 은은한 향을 추천한다.

점심, 특히 한식을 먹은 후에 현지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 향수를 뿌려서 옷에 밴 음식냄새를 없애야 한다. 가능하면 옷을 바꿔 입고 샤워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향수만이라도 뿌려 불쾌한 냄새를 아르헨티나인에게 풍기지 않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김치, 마늘, 된장, 생선튀김 냄새를 매우 싫어한다.

7) 기타 에티켓

회의 시 모든 참가자의 출석을 기다리고, 모두 모인 후 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는 모두에게 일대일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말할 때 손을 허리에 얹는 것은 피하고, 식탁이나 상자 등에 기대서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디랭귀지는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눈을 지속적으로 마주치고 말할 때는 손을 허리나 엉덩이에 두지 않아야 하며, 하품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려야 한다.

또한, 바이어와 상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서 흔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한국의 출장업체가 바이어와 상담 시 고함을 지르고 돈다발을 흔들면서 결제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어가 해당 행위를 인격 모독 행위라고 무역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

8) 첫 대면에 자연스러운 주제의 이야기 하기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축구, 날씨 등을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추켜세워주는 화법이 필요하다.

9)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불쾌감을 주는 언행 삼가하기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대해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 국민적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반(反) 영국 감정을 고려하여 영국을 긍정적 측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삼가고, 특히 포클랜드는 ‘말비나스(Malvinas)’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지도에는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옆나라 칠레에 대한 반감도 매우 높아서 칠레에 관한 좋은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Mercadolibre/메르카도 리브레

사이트 주소	www.mercadolibre.com.ar
개요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기 있는 이커머스(e-commerce) 기업이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등 18개 남미 국가에 진출해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ercadolibre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22년 기준 매출규모는 약 US\$ 105억 달러(남미전체)*, 아르헨티나 고용인원은 800~900명이다. *자료 : 스타티스타(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30403/mercadolibre-revenue/)
주요 판매 품목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부터 자동차, 부동산(월세) 등 모든 분야 판매가 가능하다.
특징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에 유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남미의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이다. 2007년 중남미 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업뿐만 아니라 Mercado Pago(메르카도 파고, 결제플랫폼), Mercado Envios(메르카도 엔비오스, 물류), Mercado Credito(메르카도 크레디토, 자금 대출)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OLX/오엘엑스

사이트 주소	https://www.olx.com.ar/
개요	87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6년 설립, 전세계에 약 1,200명을 고용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250~300명을 고용했다.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 부동산(월세), 가구 등이 주를 이룬다.
특징	아르헨티나 기업인이 설립한 남미의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이다.

◦ Despegar/데스페가르

사이트 주소	https://www.despegar.com.ar/
개요	아르헨티나 기반 항공권 사이트로 항공, 호텔, 패키지 여행 등 여행상품 관련 판매를 진행하는 사이트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9년 설립, 약 750명의 직원이 있다.
주요 판매 품목	항공권, 호텔 숙박권, 패키지 여행 등 여행 관련 상품판매를 진행한다.
특징	남미의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이며, 여행 관련 자회사 5개를 소유하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KOTRA 지원을 통한 바이어 확보와 공격적인 시장 진출

디지털 방송 수신기(일명 Set Top Box)의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으로 시장 점유율과 이윤의 폭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 이에 중소 기업인 A사는 방송사 직납시장의 주요 타겟으로 인도, 동유럽, 러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위성/케이블 방송사를 설정해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했고, 중남미 시장개척에 나서 성공했다. 방송사 직납시장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한발 빠른 정보 입수다. KOTRA 무역관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M사가 디지털 방송 프로젝트를 위해 STB 공급사 선정을 한다는 유용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A사는 무역관의 도움으로 M사의 경영진과 교신을 시작해 디지털 프로젝트의 STB 공급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방송사 직납시장에서는 한 번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가격, 납기, 결제 조건 등의 영업적인 요소만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 공격적이고 끊임없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품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중도에 시장개척을 포기하기 쉽다. 특히, 남미(南米)처럼 원거리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A사는 이러한 점을 역(逆)이용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진을 파견했다. 첫 제품 샘플을 기술진들이 직접 들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해 M사의 기술진과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약 1개월 간의 초기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고, 무엇보다 장기간 기술진 파견을 통해 기술 지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A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직접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M사의 경영진과 미팅을 진행해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대부분의 경쟁사의 경우, 남미처럼 지리적으로 먼 곳은 지역 영업담당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출장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M사의 경영진에 상당한 호감을 주었고 거래 성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결국, 2만 달러 수준의 Trial PO를 접수해 선적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술진을 아르헨티나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한 달이 넘는 장기 체류를 통해 처음 선적된 제품이 M사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했다. 적합성 테스트의 성공과 함께 최초로 100만 달러 규모의 정식 오더를 받았으며, 본 물량 공급을 통해 남미 아르헨티나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2) 신규시장 집중 공략

한국의 곡물식별기 공급업체인 D사는 아르헨티나에 제품 수출을 희망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현지 브랜드보다 낮은 상태였다. 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업체는 아르헨티나 주요 곡물 잡지에 D사의 곡물식별기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으며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농업부가가치 액이 150억 달러를 넘는 농업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곡물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정확한 시장정보가 없었다. 이에 따라, 동 업체는 아르헨티나의 각 곡물 시장조사를 진행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농업 관련 전문 자료는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을 통해 입수했고, KOTRA의 Sales Rep 사업 운영을 통해 현지 주요 곡물 생산자들을 방문했다. 북쪽 지방 담배 생산기업 및 대두, 밀 생산기업을 방문해 가격경쟁력을 어필했고,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 D사는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을 727% 증가시킬 수 있었다.

3) 진출방향의 전환으로 시장확장

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V사는 기존 거래처가 있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입규제로 수출 부진을 겪었다. 동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을 통해 수출 확대방안을 강구했고, 무역관 심층 조사결과 자동차 부품 수입/유통만 하는 업체들의 수입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현지 자동차 부품 생산기반을 둔 업체의 수입(부분품, 기타 자재)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완제품 수입이 어려우므로, 무역관 측에서는 자칫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아르헨티나 현지 클러치 생산기업 중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사와 접촉해 완제품 홍보가 아닌 파트너링 사업(OEM, 기술이전)을 제시했고, 바이어는 OEM 및 기술이전 관련 파트너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현지 시장 확장에 성공했다.

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도 확보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업체인 H사는 다이아몬드 공구 수출 물류 작업 완화를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을 통해 물류작업뿐만 아니라, 신규 아이템인 멀티와이어 제품과 피켓제품을 마케팅하기로 협의했으나, 아르헨티나 내 관련 분야는 보수적으로 낯선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았다. 하지만 브라질 석재분야에서 얻어낸 성과와 생산성을 공유하며, 점진적으로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지사화 사업에 참가한 이후로 연 3~4회 가량 현지 출장을 통해 주요 업체(약 7개)와의 연락을 유지

했으며, 담당자와의 면담 및 멀티와이어 테스트 제안서를 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2017년 3개의 신규 거래처와 수출에 성공했다.

담당자의 현지 출장뿐만 아니라, 현지 석종(石種)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팀의 방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지 담당 직원, H사의 담당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담당 직원이 함께 단체 WhatsApp방(房)을 만들어 빠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현지 바이어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5) 아르헨티나 현지 진입장벽 및 타겟 바이어 파악, 컨택과 적극적인 현지 출장 지원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으로 인해 수입 장벽이 높은데다, 브라질 제품과의 가격 경쟁 심화로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S사는 2017년 지사화 사업을 신청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에서는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여 S사와 공유했으며, 심층 조사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고가(高價) 브레이크 패드를 취급하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S사 제품을 소개했다.

관심을 보인 바이어는 S사 관계자와 상담을 요청했으며, S사 담당자는 바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해당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거래 조건을 협의했다. 약 6~8개월 동안 제품 등록 과정을 거쳐 2018년 말 첫 오더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 제품은 2019년에 약 U\$ 150,000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S사는 지사화사업을 통한 바이어 발굴, 제품 등록 지원 및 꾸준한 거래선 관리로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목표를 달성했다.

6) 화상상담을 통한 바이어 발굴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어들과의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샘플수령과 빠른 업무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본사 및 무역관에서 주관하는 화상상담회를 통해 바이어와 빠른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메일과 유선으로만 진행하기 어려운 세부사항 협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OEM 진행을 원했던 B사의 경우 무역관의 화상상담 주선을 통해 빠르게 제품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덕분에 첫 오더 수주에 성공했다.

전시회, 상담회 참가가 어려워지며 바이어들과 빠른 연락 및 협의가 어려워져 무역관에서는 주 2~3회 가량 바이어 및 지사화 기업들과 화상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진출을 돕고 있다. 주요 필요품목 및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품목(오토바이, 자전거 관련 품목, 위생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 정보를 파악하여 인콰이어리 발굴과 화상상담 진행으로 이어가며, 현지 기업과 우리 기업들의 협의점을 찾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화학약품 인콰이어리를 보내온 현지 기업 O사를 위해 무역관에서는 바이어 요청사항에 맞는 우리 기업을 발굴하여 연결하였으며, 바이어 측의 요청사항(수입국 인접국 지정 관련)을 협의하기 위해 화상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화상상담 이후 협의가 완료되어 수출 일자를 조율 중이며,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 신규 바이어 발굴에 성공했다.

7) 현지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거래 유지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보유고 유지 및 확충을 위해 외환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어들이 수입 대금을 선송금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기업들도 파이낸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파이낸싱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기업 M사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기존 T/T 결제에서 대금지급을 선적일 기준 240일 후에 진행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로 현재 4~5개사와 활발히 거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지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인지, 자금 유동성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역관을 통해 크로스 체크 등을 시행해서 파이낸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통보 A7532호를 통해 수입승인 카테고리화 및 통관일 기준 최대 180일 경과 이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구매 허용

나. 실패사례

1) 정권교체에 따른 수입제도 변경

우리기업 D사의 경우 현지 바이어와 2018년까지 트랙터 수입을 진행해 왔으나, 2019년 정권이 교체되며 더이상 수입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트랙터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2) 가격경쟁력 열위로 인한 거래 중단

아르헨티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수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섹션별

기를 납품해오던 우리기업 W사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바이어가 공급자를 브라질 제조 제품으로 바꾸는 사태가 발생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관광/상용 비자: 90일까지 비자 면제(No-Visa)

- 관광·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2003년 12월 27일부터,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2004년 7월 1일부터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입국 후 90일 경과 전 현지에서 90일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체류연장신청을 하는 것보다 출국 후 재입국 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통상적으로 출국-재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는 우루과이를 갔다 오는 것이 통상적이며, 출국 - 재입국 소요비용은 약 100~150달러이다.
- 일반적인 방문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르헨티나로는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다.

*체류연장신청 : 거주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 체류 연장 요청일, 현재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https://www.argentina.gob.ar/interior/migraciones/turistas>)

2) 학생비자 (Visa de Estudiante/Student visa)

- 학생비자의 경우 365일 이상/이하로 발급 가능하며,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 요청 자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신청 양식 제출, 체류 및 학비 관련 자금증명 서류, 무범죄 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 비용: 250달러이며,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 (365일 이하 체류시 150 달러)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student-visa-365-days-0> (365일 이상 체류 시)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student-visa-365-days> (365일 이하 체류 시)

3) 가족비자 (Visa por Reunificacion Familiar/Family reunification visa)

- 아르헨티나 사람의 배우자, 자식 및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 발급을 진행한다.
- 요청 자료: 영사 관할권 내의 거주지 증명서, 가족 증명서(출생 신고서/결혼 증명서 등), 아르헨티나 국민/영주권자의 주민등록증(DNI) 사본, 무범죄 증명서(16세 이상) 등 자료가 필요하다.
- 비용: 250 달러 (서류비용) + 600달러 (이민세)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family-reunification-visa>

4) 취업비자(Working visa)

- 취업비자는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발급하는 비자로, 거주지 관할 아르헨티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 요청 자료: 여권, 비자신청양식, 영사 관할권 내 주소 증명서, 무범죄증명서, 고용 계약서 (공증 필요), 수수료 등
- 비용: 250 달러 (서류비용) + 600달러 (이민세)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working-visa>

5) 직원 비자 (Visa for expatriate staff)

- 직원비자는 외국에서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동일 기업으로 발령할 때 발급하는 비자로, 거주지 관할 아르헨티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 요청 자료 : 여권*, 비자신청양식, 영사 관할권 내 주소 증명서, 무범죄증명서, 해외에서 회사가 발행한 고용 계약서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직책, 근무 연수, 월급액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회사 레터 헤드 형태 자료) 등
- * 여권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비용: 250 달러 (서류비용) + 600달러 (이민세)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visa-expatriate-staff>

6) 거주비자

- 상사 주재원 등이 발급받는 거주 비자의 경우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거주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는 매년 아르헨티나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의 갱신허가를 받음으로써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7) 워킹홀리데이 비자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목적 비자신청은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 비용 : 무료
- 신청자격 요건
 - 한국 국적 보유 및 한국에 거주하는 자
 - 아르헨티나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한국 여권을 보유한 자
 - 사증 신청 당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 부양 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과거에 관광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초기 정착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귀국 항공권 예약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귀국 항공권 구입을 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사고 발생 시 12개월 간 입원 및 본국 송환을 위한 모든 지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건강 보험 보유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조 요망
 - https://overseas.mofa.go.kr/ar-ko/brd/m_6219/view.do?seq=119717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 참고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 천우빌딩 5층
- 근무시간 : 9:00 ~ 16:30
- 전화 : 02-796-8144
- 팩스 : 02-792-5820
- 이메일 : ecore@mrecic.gov.ar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 한도 금액(일반면세기준)

항공 또는 선박을 통한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은 50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250달러 이하)이며, 육로(교량 포함)를 통해 입국할 시 1인당 면세 한도 금액은 300달러(단, 만 16세 미만은 150달러)이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세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의류, 책자, 신문 등 여행객이 통상 개인적 용도로 지참하는 물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나, 컴퓨터(노트북 or 태블릿PC), 핸드폰의 경우 1인당 1대씩으로 제한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 금액은 위의 개인 수하물 면세 한도 금액과 별도로 추가로 허용된다.(동일한 금액)

출국 시에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컴퓨터나 기타 수입품들을 출국 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2018년 9월에 폐지했다.

2) 휴대품 통관 정보(면세)

- 주류: 2병 이하
- 담배: 200개비(cigar의 경우 50개비)
- 향수: 2개 이하
- 식료품: 5kg 까지

3) 외환신고

입국 시 10,000달러 혹은 이에 상응하는 타 외국환 소유 시 세관에 신고 및 OM 2087 양식 등록이 필요하다. 출국 시에는 만 22세 이상 여행객의 경우, 10,000달러 이상(또는 상응하는 금액의 타 외국환이나 금품류 포함)의 휴대 반출을 금지한다.(단, 금융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허가서 지참) 한편, 만 16~21세인 경우 500달러까지, 만 16세 미만은 300달러까지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의 휴대가 가능하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54 11) 4802-8865
주소	Av. del Libertador 2395,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r-ko/index.do
비고	(현재 대사관 지역 통신 문제로 임시번호 사용중) ○ 임시번호(09:00~17:30 응대) - 대표전화 : +54 9 11 4036 2106 - 영사과 : +54 9 11 3875 8885; ※ 24시간 사건사고 긴급전화(+54 9 11 4141 1450)는 변동 없음.

○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54 11) 4312-3472
주소	Maipú 972,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argentina.korean-culture.org/ko
비고	○ 업무시간 (09:00~17:00)

○ 재아르헨티나 한인상인연합회

전화번호	(+54 11) 5365-7090
주소	Concordia 540 3층 C호,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s://caemca.com.ar/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아르헨티나 정부 (Gobierno Argentino)

전화번호	(+54 11) 4344-3600
주소	Balcarce 50,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
비고	현지 정부

◦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전화번호	(+54 11) 4349-5000
주소	Hipólito Yrigoyen 250,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s://www.argentina.gob.ar/economia
비고	현지 정부

◦ 아르헨티나 투자청 (Agencia Argentina de Inversiones y Comercio Internacional)

전화번호	(+54 11) 5199-2263
주소	Carlos Pellegrini 675, 9º, Buenos Aires, Argentina; Paraguay 864, Buenos Aires, Argentina
홈페이지	https://www.inversionycomercio.ar/
비고	현지 정부 (산업부/외교부 산하)

◦ 외교부 (Cancillería Argentina)

전화번호	(+54 11) 4819-7000
주소	Esmeralda 1212,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s://www.cancilleria.gob.ar/
비고	현지 정부

◦ 플라린 신문사 (Clarín)

전화번호	(+54 11) 4309-7500
주소	Piedras 1743, CABA, Argentina
홈페이지	https://www.clarin.com/
비고	현지 언론사

◦ 라 나시온 신문사 (La Nación)

전화번호	(+54 11) 4302-5093
주소	Bouchard Av 557, 6, Capital Federal (1106), Capital Federal, Argentina
홈페이지	https://www.lanacion.com.ar/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365 ARS(아르헨티나 페소)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콤보	5.0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3.69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3.690
4	식품	후라면	1봉지	5.12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5.75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1병	0.780
7	음료	코카콜라(0.33Lt 식당 최저가)	330ml	1.160
8	의료	항생제(AMOXIDAL 1g)	16정	10.95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5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21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1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6.430
13	서비스	휘발유 (Gasoline)	1Lt	0.880
14	서비스	전기세	1Kwh	0.1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750
16	여가	담배	1갑	2.000
17	여가	소주 (인터넷 판매최저가)	360ml	9.860
18	임금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세후/월 기준	958.9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초등학생) 수업료	연간	6279.1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2023년 11월 30일 기준)	%	133.000
21	식품	쌀	1kg	0.890
22	식품	식빵	한묶음(500g)	1.490
23	식품	고기	1kg	5.760
24	식품	계란	12개	1.600
25	식품	우유	1L	0.870

26	식품	식용유	1L	1.89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700
28	주거	수도세	m ³	0.540
29	주거	가스비	m ³	0.80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82.19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10.0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Fiat Cronos 기준	369.86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00km 주행기준	10.50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2.40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3G, 월	19.8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300MB)	43.170
37	서비스	OTT 구독료(Netflix Premium)	1개월	13.49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1.91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8.21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일수)	19.0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numbeo, Alfabeta Net(의약품 가격 사이트), Edesur(아르헨티나 전력청), MetroGas(아르헨티나 도시가스청), Aysa(아르헨티나 상하수도국), Mercadolibre(아르헨티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종합 자료>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통화단위: 아르헨티나 페소(Peso: \$), 센타보(Centavo)

- 1페소 = 100센타보
 - 참고: 1992년 1월 1일부터 화폐 개혁을 실시해 화폐 단위를 아우스트랄(Austral)에서 페소(Peso)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 지폐: 2, 5, 10, 20, 50, 100, 200, 500, 1,000페소 등 7종 (2, 5페소는 2020년부터 사용 중지 되었다.)
 - 동전: 1, 5, 10, 25, 50 센타보, 1페소, 2페소, 5페소, 10페소 등 9종 (센타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있다.)

환전방법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 신분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할 수 있으나, 공식 환전소의 적용 환율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시중 비공식 환전소를 이용한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많은 아르헨티나인이 일종의 open된 비공식 환전 마켓인 비공식 환전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환율의 경우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며, 플로리다 거리 등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 거리나 상점에서는 달러화 지급도 가능하다.

- 2023년 5월 17일 기준 공식/비공식 환율 비교
 - 공식환율: 1 USD = 232 ARS
 - 비공식환율: 1 USD = 482 ARS
- 환율은 Dolar Hoy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https://dolarhoy.com/>)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적인 편으로 현지식당, 쇼핑센터,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금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부로 모든 도·소매 상점의 카드사용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가맹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다를 수 있으니, 소지한 신용카드 결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국식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페소 또는 달러 현금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출퇴근 시간(9시/18시~19시)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다. 오벨리스크 근처, 센트로에는 낮 (12시~15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하며, 주차가 어려워 가까운 거리라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는 국회의사당(Congreso), 대통령 청사(Casa Rosada) 및 노동부 주변에서 자주 시위가 일어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리를 막아 시위 장소 주변은 물론 도시 전체가 교통체증이 심화된다.

버스

1)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버스 노선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나, 그만큼 노선이 복잡하고 안내방송이 없어 방문객들의 이용이 쉽지 않다.

- 구간에 따라 요금이 상이(2023년 5월 기준 기본요금 46페소)하며, SUBE 교통 카드를 이용해 탑승이 가능하고 현금지불은 불가능하다.
- 대부분의 구멍가게(Kiosco), 지하철역, 우체국, 가판대, 택배업체 OCA 등 여러 곳에서 교통카드 구매 및 충전이 가능하다.
- 어플리케이션 Moovit을 사용하면 버스 노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환승제도가 있어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환승이 가능하다. (환승제도: Red Sube)

- 환승시 한국처럼 거리 계산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며, 두 번째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적용, 세 번째 대중교통 요금 75%가 할인된다.
- 2시간 안에 5번까지 환승 가능하다. (세 번째 대중교통 이후 할인율은 75%로 동일하다.)

택시

시내 교통으로는 택시 이용이 가장 쉬운 편이며, 현재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3,500대 이상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 운전사에게 거리 이름과 번지만 알려주면 정확하게 안내해주며, 요금은 앞좌석 상단에 부착된 미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5월 기준 기본요금은 351페소이고, 거리 시간 병산제로 200m 및 1분당, 35.1페소씩 추가된다.
- 야간 할증은 22시부터 6시까지이며, 일반요금의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2023년 5월 기준 야간 할증 기본요금은 421페소이며, 추가 요금은 42.1페소이다.
- 요금 지불 시 팁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소액의 잔돈 정도를 주면 된다.
- 콜택시: (+54 11) 5238-0000 (+54 11) 4932-2022

레미스(REMIS)

자가용 영업차로 레미스 회사에 전화로 택시를 요청하면, 콜택시처럼 집이나 호텔에 도착한다. 미터기는 없고 요금은 거리에 따라 사전에 정하며 택시보다 안전도가 높아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했으나, 우버(Uber), 캐비파이(Cabify) 등의 어플리케이션 등장으로 수요가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난다. 장거리 운행에 이용 가능하며,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운전기사가 불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 좋다.

App 전용 택시

우버(Uber), 캐비파이(Cabify), 디디(Didi) 등 앱으로 사용하는 택시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추세다. 운전자의 신상정보 제공 및 여행 거리에 따른 요금정보 사전 안내 등 안전성 및 편의성이 좋아서 최근 일반 택시보다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핸드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Uber, Cabify, Didi)을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하철이 6호선까지 운영되고 있고, 노선이 방사선형으로 도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외곽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하다.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의 1회 이용 요금은 49페소이고, 교통카드인 SUBE를 사용해야 한다. 시간이나 거리 제한이 없으며 다른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하고, 환승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다. 2023년 기준 A,

B, C, D, E, H라인 총 6개 노선과 프레메트로(P라인)라는 시내 전차 노선이 있다.

기차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외곽으로 이동할 때에는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 이용요금은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교통카드인 SUBE를 사용한다.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하므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통신

핸드폰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 혹은 유심칩을 새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모비스타(Movistar), 페르소날(Personal), 클라로(Claro), 넥스텔(Nextel) 4개사가 있으며, 저렴하게 유심칩을 구매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장착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 임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액요금제(plan) 가입이 번거롭기 때문에 선불요금제(preago)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편리하다. 선불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일반 편의점(Kiosco) 혹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와이파이)

TV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아르헨티나 유선전화 회사인 텔레포니카 아르헨티나(Telefonica Argentina)와 텔레콤 아르헨티나(Telecom Argentina)사가 인터넷+케이블+유선전화 결합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속도에 따라 5,000~10,000페소로 요금이 상이하며, 서비스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지역 상가는 대부분 와이파이기가 무료로 설치되어 있으며, 와이파이 연결 비밀번호는 해당 상가 점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지하철 또는 공원 등에도 와이파이기가 설치되어있다.

라. 관광명소

○ 이과수 폭포(Catarata de Iguazú)

도시명	미시오네스 주
주소	Parque Nacional de Catarata de Iguazú;
운영시간	8:00~18:00/ 보름달 투어 진행시 밤늦게 입장 가능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984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과수 폭포는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손꼽힌다. 밀림 속에 있는 폭포로 브라질 쪽을 합해 약 300개의 폭포가 연결되어 있는 폭포 중의 폭포라 할 수 있으며,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답고 장엄한, 문자 그대로 세계 제일의 폭포이다. 높이는 물론 폭포의 길이도 나이아가라보다 훨씬 더 긴 4km에 이른다. 폭포 자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에 걸쳐 있다.
비고	항공 일정상 당일 관광은 불가능하고, 충분한 관광을 위해서는 2박 3일 정도가 소요된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양국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항공경로를 상파울루-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 편으로 하는 것이 시간 및 예산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과수 폭포 홈페이지 : https://iguazuargentina.com/

○ 라 보카 지역(La Boc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지역. (Av. Martín García, Av. Paseo Col&ocuten, Brasil, la D´rseña Sur y el Riachuelo길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운영시간	-
휴무일	-
명소소개	라플라타(La Plata) 강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최초의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 이민자들의 거주지였으며, 18세기 이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항구였다. 보카 지역에는 아르헨티나 최고 축구클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보카 주니어스(Boca Juniors)의 홈구장이 있다. 화려한 원색으로 치장한 카미니토(Caminito) 거리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명소이기도 하다.
비고	이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층 집단 주거지로, 야간에는 치안이 나빠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낮에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곳이다. 관광 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바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 카사 로사다(대통령 궁)(Casa Rosad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Balcarce 50, C1064 CABA
운영시간	토: 10:00~18:00 (토요일만 운영, 영어 가이드는 12시 30분에 진행하며 무료이다.)
휴무일	-
명소소개	스페인 로코코 풍의 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까지 건설돼 역대 대통령의 공식 행사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장미 색깔은 1873년 당시 사르미엔토(Sarmiento) 대통령이 여당의 빨간색과 야당의 흰색을 조합한 장미색을 양 정파 간의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색칠한 데 연유하고 있다. 영국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쓰이기도 했고, 10만 명이 전국에서 운집한 가운데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영부인이 연설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주말에는 일반인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돌아볼 수 있다.
비고	5월 광장(Plaza de Mayo), 북쪽의 대성당(La Catedral)에는 독립의 영웅 산마르틴 장군의 묘가 있고, 서쪽에는 역사 기념물로 지정된 카빌도(Cabildo: 총독부)가 있다.

○ 레콜레타 묘지(Cementerio de la Recolet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Junín 1760, C1113 CABA
운영시간	월~일요일: 7:00~17:30
명소소개	1882년 사방 150m 규모로 개설된 유서 깊은 묘지로, 이 중 70여 개의 묘는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에비타(Evita) 무덤이 있는 레콜레타는 아르헨티나 유명인사의 가족 묘지로서, 조그만 대리석 묘원에는 누대의 유골이 함께하고 있다. 예술적인 건축 기술 및 조형물들로 인해 묘지 같은 느낌은 하나도 나지 않는다. 다만, 에비타의 무덤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규모 또한 크지 않아 막상 도착하면 실망하기 쉽다.

○ 국회의사당(Congreso Nacional)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Av. Rivadavia 1864
명소소개	민주주의와 입법권을 상징하는 그레코로만 양식의 위엄 있는 건물이다. 이탈리아인 빅토르 메아노(Vitor Meano)가 설계해 1897년에 건축을 시작, 1906년에 완공됐다. 5월 대로를 통해 대통령 궁(Casa Rosada)과 연결돼 있다. 광장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복제품, 기념비와 분수대가 있어 일반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5월 광장과 더불어 정치 집회가 많은 곳이다.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칸사스 그릴 바(Kansas grill bar)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776-4100/(+54 11) 4811-1339
주소	Av. Del Libertador 4625Av. Sta. Fe 1946
가격	인당 15달러 내외
영업시간	월~일요일 11:45~24:00
소개	미국식 식당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라 브리가다(La Brigad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361-5557
주소	Estados Unidos 465
가격	인당 30~40달러 내외
영업시간	화~일 12:00~15:00 / 20:00~24: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아사도, 스테이크 전문 메뉴확인 : labrigada.com.ar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해프닝(Happening)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319-8712/8
주소	Av. Alicia Moreau de Justo 310
가격	인당 20~30 달러 내외
영업시간	월~일요일 12:00~02:00
소개	아사도 전문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홍콩스타일(Hong Kong Style)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2758-9894
주소	Montes de Eses 2574
가격	인당 20 달러 내외
영업시간	화~토요일: 20:00~23:30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중식 고급 식당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 한국식당

◦ 향가(Cancin Corean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631-8852
주소	Av. Carabobo 1549
가격	인당 10~20달러 내외
영업시간	화~금요일: 18:00~22:45 토요일: 12:00~17:00 / 18:00~22:45 일요일: 12:00~17:00 / 18:00~22: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삼계탕, 보쌈, 칼국수 등 한식당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도마(Dom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6046-4875
주소	Helguera 748, CABA
가격	15~20달러
영업시간	월~토요일: 12:00~14:30 / 17:30~22: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보쌈, 닭갈비, 냉면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수라(Sura)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671-3091
주소	P´ez 3361, CABA
가격	15달러
영업시간	월~토요일: 17:00~23: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아사도 정식 (아르헨티나식 고기구이와 한식반찬)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 더(The) 큰집(The KunJip)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전화번호	(+54 11) 4612-1385
주소	Felipe Vallese 3209
가격	15달러
영업시간	월~토요일: 12:00~16:00 / 17:00~23: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고기정식
비고	가격은 1인 기준 평균이며, 음료 및 메인음식 포함임.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힐튼호텔(HOTEL HILTON)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Av. Macacha Güemes 351
전화번호	(+54 11) 4891-0000
홈페이지	http://www.hiltonbuenosaireshotel.com/
숙박료	260달러(싱글, 트윈)
소개	2002년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비즈니스 센터와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메리어트 호텔(Buenos Aires Marriott)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Carlos Pellegrini 551
전화번호	(+54 11) 4348-50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en-us/hotels/buemb-buenos-aires-marriott/overview/
숙박료	156달러(트윈, 더블/조식 포함)
소개	최대 거리인 7월 9일 대로(9 de Julio) 변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로 주요 상권, 정부부처, 금융센터 근처에 위치해 있다.

○ 멜리아 부에노스아이레스 부티크(MELIÁ BUENOS AIRES BOUTIQUE)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Reconquista 945
전화번호	(+54 11) 4891-3800
홈페이지	https://www.melia.com/
숙박료	140 달러(싱글, 트윈/조식포함)
소개	1999년에 새로 문을 연 스페인 Melia 호텔의 체인으로, 중형 비즈니스 호텔로서 상가 및 은행가에 인접해 있다.

- 게스트하우스

◦ 남미사랑 호스텔()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Av. Bartolomé Mitre 1691, B1873AMC CABA, Argentina
전화번호	(+54 11) 3221-3235
숙박료	8달러
소개	아르헨티나 관광지역 산텔모에 위치

◦ 호텔 크리스탈 스위트(Hotel Cristal Suite)

도시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특별시(CABA)
주소	Moron 2893
전화번호	(+54 11) 2310-7077
숙박료	50~90달러
소개	한인 상업밀집지역 아베자네다에 위치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남미 국가 중 치안이 좋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나, 2001년 말에 발생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치안상태도 악화됐다.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사건, 강도, 살인사건 등이 주류로 대법원 판사, 현직 장관 등도 집 부근에서 강도를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수 발생했다. 현재 치안상태가 조금 나아진 편이나, 외출 시 신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는 도심이나 변두리, 인적이 드문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고, 필요한 경우 2~3명 이상이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의 경우 늦은시간 택시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콜택시(Radio Taxi)나 레미스(Remis, 콜택시의 일종으로 일반 개인 승용차 형태) 또는 Uber, Cabify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한인촌(일명 백구) 및 한인 상점 1,200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아베자네다(Avellaneda) 상업지구 부근에서도 강력 범죄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지역은 인근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이민자들로 인해 퇴근 시간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총기사건 및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강도 사건 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치안 불안 지역이다. 이에 한인방범위원회에서는 아베자네다 상가 지역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방범훈련을 실시하는 등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치안상황은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2023년 현재까지 경기 악화가 이어지며 강도·절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지 출장 및 방문 시에는 고가품이나 과다한 현금 등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항공권·고가품·현금 등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아르헨티나를 여행자제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량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회사직원의 현장 방문과 견인차를 기다린다. 필요한 경우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 신분증, 보험회사정보를 주고받으며, 상대방 운전자의 등록증(cedula), 보험가입증서, 보험료 납부증서, 운전면허증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가용 이용 시 운전자의 해당 자가용 사용이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등록 국토 관리청(DNRPA)에서 등록증(Cedula)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증 없이 운전할 경우에는 차주가 동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교통 당국에서는 절도된 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운전시에는 항상 사고를 대비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보험료 납부증서, 차량 등록증, 차량 정기검사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로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단수여권 또는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단, 다른 나라로 경유를 원할 시 국가별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경유하는 나라가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신고서 및 재발급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사유서 작성으로 인정되며, 여권용 사진의 경우 대사관 내에서 촬영 가능하다.

4) 발급비용

- 단수여권 : 미화 53불에 상당하는 페소(부착식)
- 여행증명서: 미화 25불에 상당하는 페소
- 대사관 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ar-ko/brd/m_6215/view.do?seq=1202286&page=1)

5)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00
- 범죄 신고: 195 또는 911
- 앰불런스 서비스: 107(사립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응급서비스에 연락)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매매와 임대차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주택이나 사무실을 구입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시민권, 영주권(DNI) 또는 적법한 비자 등 법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 2~3개월 단기체류 외국인의 아파트 임차는 예외이다.

대부분의 부동산 취득 또는 임대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임대 또는 매각을 원하는 건물에는 매매(venta) 또는 임대(alquiler)라는 간판이 건물에 돌출형으로 부착되어 있다. 간판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착한 것이며, 연락처는 부동산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이다. 거래 성사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원매자(願買者)는 주인과 직접 대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협의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하게 된다.

2)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매매

○ 매매

- 부동산 수수료: 매매가격의 3~4%(부가세 별도)

○ 임대

- 부동산 수수료

임대 총액의 최대 4.15%를 부과할 수 있다. 임대 기간 연장 시(예: 3년 임대 후 추가 3년 연장 시)에도 추가 연장 기간에 대해 부동산업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의 경우 임대인이 동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 보증금: 보통 임대료의 1개월 치 금액

- 임대 보증인 및 집 보증

임대 시 세입자는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증인을 제시하거나 보증제도를 신청해야한다. 주인 또는 세입금액에 따라 보증인은 1~2명이 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부동산은 보증인 신용에 관해 철저히 조사를 한다.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든 경우 1년 치 임대료를 선불하는 사례도 많다. 만약 보증인이 없다면 Seguro de Causion 이라는 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가 가능하나, 해당 보증 제도는 임대료 2~3개월 치를 더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며,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보증 방법과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 볼 때 관련 정보를 미리 요구해야 한다.

- 임차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이 일반적

주택이나 사무실 임차 모두 재계약 시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임차료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23년 5월 기준 현지 법령에 따르면 주택은 3년 계약 및 임대료 인상은 1년에 한번, 정부에서 지정하는 인상률로 지정되어있다.

전화

1) 유선전화

○ 아르헨티나 유선전화 시장은 모비스타(Movistar-Telefonica Argentina-)와 텔레콤 아르헨티나(Telecom Argentina)사가 독점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 회사별로 인터넷+케이블+유선전화 결합 상품의 경우 인터넷 속도에 따라 5,000~10,000페소로 요금에 차이가 있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국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의 연락을 위해 인터넷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할인 이 많은 편이다.(최대 70%까지 할인 가능)

* 1USD=482ARS(2023.5.17. 기준/암환율)

2) 무선전화

○ 무선전화 라인 개통은 어렵지 않으며, 이동통신사에서 즉시 개통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로는 클라로(Claro), 모비스타(Movistar), 페르소날(Personal) 등이 있다.

-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 여권 번호로 등록 가능하나, 선불제만 이용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가정·사무용 전기는 220V, 50Hz이다. 아르헨티나의 전자제품 연결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나이프(knife) 모양이다. 한국(220V 원형)이나 미국(110V 1자 형)의 연결구가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커넥터를 준비해야 한다.

식수

출장자나 여행객은 생수를 호텔 또는 슈퍼에서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수도물은 소독을 위해 염소를 많이 넣어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생수는 일반 물인 Agua sin gas(아구아 썬 가스)와 탄산수인 Agua con gas(아구아 콘 가스)가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아르헨티나에서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로, 도요타 차량을 선호한다. 차량 할부 구입 시스템은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차량 구매 시 브로커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차량가격

아르헨티나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 완성차에 대해 35%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비싼 편이다. 2023년 5월 기준 제일 저렴한 자동차는 중국회사인 Cherry 사의 QQ Light Security 모델로 최저가격은 10,600달러* 이다.

* www.autocosmos.com.ar

* 1 USD=482ARS(2023.5.17. 기준/암환율)

일반적으로 일본 자동차인 혼다와 도요타사의 제품을 가성비 측면에서 좋게 보는 편이며, 독일 회사인 폴크스바겐과 프랑스 회사인 푸조도 대중적인 브랜드이다.

운전면허 취득

○ 국제면허 사용

-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제운전면허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후에도 운전을 하려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운전면허 취득

- 아르헨티나는 주마다 운전면허 취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운전면허 취득 시, 재아르헨티나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준다. 우선, 인터넷과 일반전화로 신청해 절차 진행 순서표를 받아야 한다. 5시간에 해당하는 운전소양강습 확인증(Charla de Teoria)이 필요하며, 자동차 운전 교육원에서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있으며, 청각, 시각, 정신과 상담의와의 테스트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35문제 중 27개 이상을 맞추는 것이 합격 기준이며, 난이도는 우리나라 필기시험과 비슷하다. 실기시험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시험관과 동승해 시험이 진행되고, 시험관의 평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즉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 운전면허 취득 시 필요서류
 - 운전소양강습 확인증, 영주권 사본, 세금 납부서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중앙은행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해 통화공급 조절을 통한 화폐가치 유지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Law of Financial Entities 9(법률 제2156호)에 근거해 은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면허를 부여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하기 링크에서 중앙은행에서 허가한 은행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bcra.gob.ar/SistemasFinancierosYdePagos/Sistema_financiero_nomina_de_entidades.asp?bco=AAA00&tipo=1

- 주요 은행 리스트
 - 국립은행(Banco Nacin): <https://www.bna.com.ar>
 - 부에노스아이레스 은행(Banco de la Ciudad): <https://www.bancociudad.com.ar>
 -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 Río): <https://www.santander.com.ar>
 - 중국공상은행(ICBC): <https://www.icbc.com.ar>
 - 갈리시아 은행(Banco Galicia): <https://www.bancogalicia.com>
 - 프랑스 은행(Banco Francés-BBVA-): <https://www.bbva.com.ar>

계좌 개설방법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정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예금의 종류는 당좌예금계정(Cuenta corriente bancaria), 저축은행계정(Cuenta de caja de ahorros), 법인특별당좌계정(Cuenta corriente especial para personas jurídicas)과 정기예금(Plazo fijo)으로 나뉜다.

-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각국의 외교사절단: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영주권(DNI) 사본
 - 세무사업자등록증(CUIT) 사본
 - 공공요금납부증명서 1매(전기, 수도, 전화 등 주거지 확인용)

○ 당좌예금계정 개설

- 목적: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은행이 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예금이다. 은행은 지급 시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할 의무를 가진다. 자금의 보관 또는 지급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이다.

- 개설조건: 당좌예금계정의 개설조건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때 개설조건에 대한 정보는 고객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하며, 이 개설조건은 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으며, 조건이 변경될 시 반드시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금융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이는 개설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돼야 한다.

○ 저축은행계정 개설

- 목적: 저축은행계정은 가계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계정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롭다.
- 개설조건: 계약 체결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저축은행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1인 기업(Empresa unipersonal) 외의 법인은 저

축은행계정을 만들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은 최소 4개월에 한 번씩 거래내역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거래내역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비용: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이는 각 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예치금 전액을 출금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Lincoln International School - Asociaci n Escuelas Lincoln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커리큘럼	미국계 학교로 외국 상사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자녀가 대부분 취학하고 있는 학교이며,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중학교 이상은 영어로만 교육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이 용이한 편이나 현지교육법에 의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학비	4세반: 15,740 달러 5세반: 21,500 달러 1~5학년: 28,100 달러 6~8학년: 29,360 달러 9~12학년: 32,500 달러 (등록금 미포함 년 기준 학비이며, 등록금은 연간 2,810~3,250달러로 학년에 따라 상이함) * 참고 : https://www.lincoln.edu.ar/admissions/tuition-and-fees
홈페이지	https://www.lincoln.edu.ar/

○ Buenos Aires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BAICA)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커리큘럼	2세~17세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 중 하나로 SACS, ACSI의 인가도 획득한 학교이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기독교 국제학교다.
학비	학비 정보 없음; BAICA 측에 직접 문의 (https://app.sycamoreschool.com/public_inquiry.php?schoolid=1760)
홈페이지	https://www.baica.com/

〈자료원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취합〉

- 현지학교

○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중고등학교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커리큘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중고등학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고등학교는 많은 유명인을 배출 했으며, 이들은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현지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매년 취학하기 위해 1년 동안의 입학시험 과정을 거친다.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www.cnba.uba.ar/ (홈페이지: 해외전용 url)
비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립학교 특성상 현지 데모가 있을 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ICA)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커리큘럼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는 전일제(全日制) 학교이며, 1995년 한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획득한 교육기관이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병행하여 교육하며,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급식실도 있다.
학비	등록비 : 49.400 페소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동일) - 병설 유치원 2~5세반 : 54.400 페소 - 초등학교 초등학교 : 54.400 페소 - 급식비 : 26.000 페소(유치원, 초등학교 동일)
홈페이지	http://icaschool.net/
비고	1995년 한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획득한 교육기관

<자료원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취합 >

마. 병원

○ 코리안 메디칼(Korean Medical)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Nazca 388, 5층
전화번호	(+54 11) 4613-576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내과, 소아과, 안과는 한국어로 진료가능, 다른 과는 통역 가능(리셉션에 요청 필요)

○ 독일병원(Hospital Aleman)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Pueyrredon1640, CABA
전화번호	(+54) 0800 555 27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코리안 메디컬과 협약 체결

○ 스위스 메디컬(Swiss Medical)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Pueyrredon 1486, CABA
전화번호	(+54 11) 4344-15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알바레스 병원(Hospital Álvarez)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Dr. J. F. Aranguren 2071
전화번호	(+54 11) 4611 6666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재아르헨티나한인상인연합회(<https://bamoda.caemca.com.ar/directories-category/salud/>),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Alto Palermo Shopping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Santa Fe 3253, CABA
홈페이지	http://www.altopalermo.com.ar/
비고	아르헨티나 수도의 대표적인 쇼핑몰이다.

○ Galerías Pacífico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Córdoba 550, CABA
홈페이지	https://www.galeriaspacifico.com.ar/
비고	소규모 백화점이지만, 백화점 내의 벽화, 갤러리 그리고 아름다운 외관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 받는 명소이다. 관광명소 중 하나인 플로리다 거리에 위치해 있다.

◦ Abasto Shopping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Corrientes 3247, CABA
홈페이지	http://www.abasto-shopping.com.ar/
비고	아르헨티나 수도의 대표적인 쇼핑몰로 지하철 라인 B Carlos Gardel 역에서 바로 쇼핑몰로 진입 가능하다.

◦ Alcorta Shopping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Jerónimo Salguero 3172, CABA
홈페이지	https://www.alcortashopping.com.ar
비고	소규모 백화점으로 Palermo 지역에 위치해 있다.

◦ Unicenter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마르띠네스(Provincia de Buenos Aires)
주소	Paraná 3745, Martínez, Buenos Aires
홈페이지	http://www.unicenter.com.ar/
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최대 규모 쇼핑몰이다.

〈자료원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취합〉

- 식품점

◦ 삼보 마트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Campana 563, CAB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한국 수입 식료품

◦ 만나 식품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Morón 3269, CAB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한국 수입 식료품

◦ 다미원 식품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Carabobo 1668, CAB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한국 수입 식료품
비고	한인촌 (백구지역)에 위치

◦ 제일 식품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Moron 3175, CABA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한국 수입 식료품

◦ 하와이 마켓 (Hawaii)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Moron 3269; Av. Avellaneda 3069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한국 수입 식료품
비고	온라인 주문 가능 : https://hawaiiimarket.com.ar/

<자료원 : 재아르헨티나한인상인연합회 주소록(<https://bamoda.caemca.com.ar/directories-category/supermercados/>)>

- 기타 편의시설

◦ 희망 골프장(Esperanza)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소	Sargento Cabral 2191
소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소재한 한인 골프장

◦ 메가틀론(Megatlón)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licia Moreau de Justo 1600, CABA
홈페이지	https://megatlon.com/
소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헬스클럽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 전역에 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회원등록시 이용 가능한 헬스장이 가장 많다.

◦ 클럽 데 아미고스(Club de Amigos)

도시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CABA)
주소	Av. Pres. Figueroa Alcorta 3885, CABA
홈페이지	https://clubdeamigos.org.ar/
소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 소재한 종합 운동장. 테니스, 수영장, 하키, 축구, 피트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다.

<자료원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취합>

사. 현지 공휴일

없음.

10. KOTRA 무역관 안내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Olga Cossettini 831 (CP:1107),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 참고 : <https://goo.gl/maps/yVDzJu3ACKAKtgFz9>
- 전화번호: (+54 11) 4312-0033
- 대표 이메일: kotra@kotra.org.ar
- 링크드인 홈페이지: <https://www.linkedin.com/company/kotra-buenosaires/>
- 우편 배송 시 유의할 점
 - 아르헨티나는 일반 국제 우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카탈로그/샘플 수취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로, 샘플 및 카탈로그 송부를 원한다면 담당 무역관 직원과 상의하여 EMS 대신 FEDEX 등 국제 운송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또한, 현지에서 물품 수취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취인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므로 반드시 물품 발송 전에 무역관 담당직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공항-무역관 이동

- 무역관이 위치한 Olga Cossettini는 보행자 도로로 공항-무역관 이동 시 주소는 Juana Manso 800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차 후 무역관까지는 도보로 약 50m 정도이며, Hilton Hotel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있다.
- 국제공항(미니스트로 피스타리니 국제공항-EZE-) 출발 시
 - 우버/캐비파이: Uber/Cabify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목적지를 입력하고 배정된 운전자를 기다리면 된다. 비용은 보통 10,000페소(공식환율 적용시 약 USD 32) 내외다. (카드결제 가능)
 - * 아르헨티나에서 우버는 상용화되어 있지만 아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이 많은 공항의 경우 우버보다는 캐비파이를 추천한다.
 - 택시 또는 레미스(Remis: 일반 승용차이나 콜택시 형태로 운행되는 합법 교통수단): 공항의 출국장 레미스 스탠드에서 사전에 주소를 보여주고 쿠폰을 구입하면 승차장을 안내해준다. 비용은 우버나 캐비파이보다 20~30% 더 비싸며, 보통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 버스: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으며 104페소(약 USD 0.46)로 국제공항과 5월 광장(Plaza de Mayo)을 연결한다. 2018년 7월부터 8번 라인 버스가 국제공항과 시내를 1시간 반에 운행하는 준고속 버스를 도입했으며, 배차시간은 30분에 한 대이다.
 - * 공식환율 : USD 1 = ARS 365 (2023년 11월 기준)
 - 비공식환율 : USD 1 = ARS 925 (2023년 11월 기준)
-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해 준다. 2층 엘리베이터 오른쪽으로 코트라 무역관이 위치해 있다. 코트라 방문미팅을 원할 시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획기간(잠정)	장소	주최
부에노스아이레스 전력 기자재 전시회 (BIEL LIGHT + BUILDING BUENOS AIRES)	2023-04-12 ~ 2023-04-15	La Rural	Cadieel
아르헨티나 광업 전시회(ARMINERA)	2023-05-22 ~ 2023-05-24	La Rural	Caem
아르헨티나 건축 전시회(BATIMAT EXPOVIVIENDA)	2023-06-28 ~ 2023-07-02	La Rural	Batev
아르헨티나 의료 전시회(EXPO MEDICAL)	2023-09-20 ~ 2023-09-22	Costa Salguero Exhibition Center	Mercoferias Srl
아르헨티나 일반 기계, 기자재 전시회 (EXPO FERRETERA)	2023-11-29 ~ 2023-12-02	Costa Salguero Exhibition Center	Ferreteros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